

설날 해피나우 노숙자 희망큰잔치



밥사랑 열린공동체 주최, 한기총, (사)NGO, 해피나우, 30여 단체교회 후원으로 2012 노숙인 설날 큰잔치 행사를 가졌다.
 서울 영등포역 롯데백화점 앞 광장에서 오라가락한 겨울비 속에 2012 1천여명의 노숙인을 대상으로 설날 희망큰잔치가 지난 21일(토)정오 12시부터 25일(수)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시작되었다.
 설 명절을 맞아 열린 이번 행사는 지난 11년간 영등포역에서 노숙자를 대상으로 매일 무료 배식을 해온 밥사랑 열린공동체 (대표 박희돈 목사)가 주최, 주관하고, 한기총과 각 교단 및 교계언론사와 30여 교회의 후원으로 이루어졌다.
 2012노숙인 설날 희망큰잔치는 5일간의 행사로, 매일 점심 12시, 저녁6시 하루 두 차례 배식을 가졌다. 21일 첫날은 따뜻한 내의 한 벌과 등산화, 찹쌀떡과 떡국 등을 배식했다. 그밖에 이번 설날 행사에서 노숙자 노래자랑, 행운권추첨, 웃놀이, 연예인 공연 등 다채로운 행사를 가짐으로 노숙자들에게 큰 위로잔치가 되었다.
 첫 날 점심 배식에 앞서 고영기 목사(삼암월드교회)의 진행으로 '설날 희망 큰잔치 감사예배'가 진행되어 설교를 맡은 광현교회 김창근 목사는 "하나님이 세상



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그리스도를 보내 주시고 그를 믿는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면서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란다"며 노숙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격려했다.
 이어 해피나우 사무총장 박원영 목사는 "금년은 서울역 노숙자 퇴출방침에 따라 영등포역 노숙자가 급격히 증가했으나 경기침체 등으로 후원모금이 전년대 비해 감소하여 30여개 교회와 기업체 등이 설 연휴를 반납하고 후원과 자원봉사자들을 보내주어 이

北 선거개입 극력저지 막아야 한다

2012년은 김정은 3대 세습체제가 채 정착되기도 전에 김정일이 사망함으로 인해서 패닉상태에 빠져 단발마직 발악을 하는 종북준비 때와 대한민국을 건국하고 북괴남침을 격퇴하고 세계 10위권 경제 강국으로 발전시킨 정통에 국내력이 국가존망을 놓고 건곤일척의 결전을 치를 총선과 대선이 겹친 해이다.
 또한 올해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대통령선거 러시아 프랑스 인도 총선대선, 대만과 중국지도부교체 등 지구촌 60여개 나라가 정권교체를 맞은 선거의 해로서 국제정세의 유동과 불확실성이 증대된 해로서 대한민국이 맞은 내외적 도전과 이로 인한 국가안보 및 정치 경제 사회적 시련도 를 것이다.
 김정일만 죽으면 모든 것이 다 끝나는 것으로 착각하거나 오해하는 사람이 없는 것도 아니지만, 전근대적 '족벌세습체제'에서는 세 살짜리 부의(傳襲)가 세 마지막 황제선통제가 됐다면, 29세 청년 김정은이 세습을 못할 이유가 없다. 그러나 명목상 세습이 시행돼도 기존노선은 한 치도 벗어나지 않을 수 없다.
 김정은 3대 세습을 전제로 2009년 4월 9일 개정된 헌법이나 2010년 9월28일 개정된 노동 당 규약에 북의 당과 군 그리고 국가는 김일성의 피조물로서 주체사상과 선군사상을 활동의 지도적지침으로 삼고, 맑스레닌주의의 혁명적 원칙을 견지한다고 못 박았음은 물론 대남적화통일노선 역시 68년간 불변이다.
 북은 2012년 신년사에서 "나의 호전광들의 전쟁책동을 저지 파탄시키는 것은 현정세의 절박한 요구"라면서 김정

일의 통일유혼 실현을 위해 "6.15공동선언과 10. 4선언의 기치 밑에 굳게 단결하여 조국통일운동에 박차를 가함으로써 올해에 자주통일의 돌파구를 열어놓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런 한편, 김정은이 <선거에 적극 개입하라>는 대남명령 1호를 하달한데 이어 구국전선은 1일 "진보세력의 대단합을 보다 높은 수준에서 이룩함으로써 올해 총선과 대선에서 역적패당에게 결정적 패배를 안겨야 한다. 내외 반

하는 <종북준비>로서는 김정일 유혼과 김정은 강압에 따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올해 총선 대선은 안으로 정통에국내세력과 중도를 표방하고 종북준비와 연대한 짝퉁보수와 대결양상이 될 것이며, 내용면에서는 박근혜와 반박근혜연합세력의 결전인 될 것이다, 밖으로는 종북세력과 내통 결탁한 김정은이 NLL및 DMZ 침범, 무차별포격, 요인암살, 유엔비어유포, 등 극단적인 도발이 예상된다.
 김정은이 <선거에 적극 개입하라>는 대남명령 1호를 하달
 2012 정통에국진영 대 북과 내통 결탁한 종북반역세력 간 결전의 해
 통일세력들을 더 이상 해어날 수없는 궁지에 몰아넣어야 한다."고 선했었다.
 이는 17대 대선을 겨냥하여 "유신의 독조를 제때에 뽑아버려야 한다."며 "반보수 진보대연합으로 매국반역집단에 종국적 파멸을 안겨줘야 한다."고 한 2006년 신년사와 "반보수대연합을 실현, 대통령선거를 계기로 매국적인 친미반동 보수세력을 결정적으로 매장"할 것을 촉구한 2007년 신년사의 재관이다.
 2009년 이래 민노와 민주가 재야촛불폭도와 통합에 혈안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며, 4월 총선에 야권공조와 12월 대선에 후보단일화를 통해서 2007년 정통영의 실패로 인한 북의 추궁과 질책에 절대충성하고 무조건 복종해야

이제 대한민국정부와 군은 김정은의 사소한 도발이라도 가차 없이 응징함으로써 북의 직접개입여지를 봉쇄 저지함은 물론, 촛불폭도의 발악적 난동을 철저히 진압 차단함으로써 자유 공명선거 환경과 분위기를 보장해야 한다. 5000만 애국시민과 300만 해외유권자는 종북세력의 기만술수에 올라나지 말아야한다. 김정은의 선거 방해 및 개입 의도는 분명하다. 北 도발과 테러는 경고에만 그칠게 아니라 철저히 대비함으로써 대남명령1호를 저지 무산시켜야 한다. 여야 정치권에서는 대선후보나 요인에 대한 자체 경비와 경호를 강화하여 北 또는 북과 연계한 불순폭력세력의 테러 공격으로부터 완벽한 방호태세를 갖춰야한다.

퓨리탄신학대학연구원 2011학기 졸업예배 드려

자신을 낮추고, 자만하지 말며, 온유하고 겸손한 일군이 되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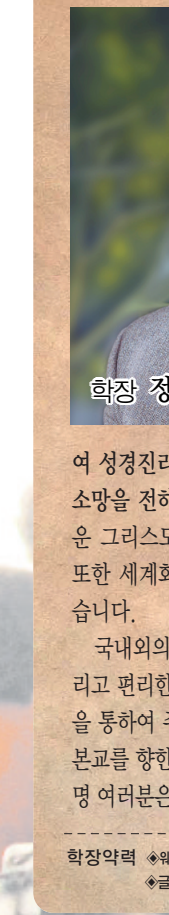
퓨리탄장로회총회직영,퓨리탄신학대학연구원(학장 서화평 박사)는 1월 28일(토)오전11시 서울 중랑구 묵1동 소재 신대원 대강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제1회 졸업생을 배출했다.
 김병서 교수의 인도로 진행된 예배에서 유근숙 부학장은 "졸업생들의 삶 속에 아버지께서 예비하셨던 크고 비밀한 계획들을 이루어 드릴 때까지 그들의 믿음이 요동하지 않고, 열성적으로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변해하는 안 된다고 말하고, 주님께 전적으로 모든 것을 맡기고 의지하는 삶속에서 기쁘고 즐겁고 감사한 조건들이 늘 나타나기를 바란다"며 기도했다.
 이어 안아영 교수가 빌 3:12~16절을 봉독하고, 학장 서화평 박사는 "꽃대를 향하여 전진하라"는 제하의 말씀을 선포했다.
 학장 서 박사는 졸업생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길에 고난을 통하여 나의 영혼에 하나님의 말씀이 보석과 같이 박히는 자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하늘에서 이룬 것같이 이 땅에서 크게 이루는 하나님의 귀한 일군들

이 되기를 기원하면서 신실한 하나님의 종은 주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요 자신을 낮추고, 자만하지 말며, 온유하고 겸손한 일군이 되라"는 말씀으로 격려하며 설교했다.
 이어 김정국 교수의 헌금기도와 졸업생들에게 서화평 학장의 졸업증서가 수여되고, 졸업생 이

영남의 졸업사가 있었다. 아울러 졸업생 대표 김용안은 학교에 복사기를 기념품으로 증정했으며, 박현성 학생회장은 졸업생에게 기념품을 증정했다. 이어 총장 서영웅 박사의 축도로 마쳤다.



웨스트민스터 신학교(Westminster Theological Seminary) 신학생 모집



지망생에게 드리는 글

현대는 새로운 세기와 급격한 변화의 세계화라는 물결 속에 접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따라서 그동안 굳게 지켜왔던 전통적 가치들이 없었이 무너져 내리는 대변혁의 시대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러한 때에 웨스턴교회 직영신학교로서 ▲ 개혁신앙에 입각한 학문의 정통성을 확립하여 시대적인 변화에 대처하고 ▲ 영적 혼란의 시기를 승리로 이끌기 위하여 성경진리의 말씀에 대한 올바른 통찰력을 소유하게 하며 ▲ 세상의 참된 자유와 소망을 전하는 영적 지도자를 배출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뜨거운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고, 미래 지향적인 다양한 훈련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또한 세계화의 추세에 맞추어 6대주에 활용할 수 있는 선교사역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국내외의 저명한 신학자들을 교수로 초빙하여 심도 있는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편리한 교통과 각종 장학제도는 모두에게 드리는 혜택이기도 합니다. 부디 이것을 통하여 주님의 원하시는 일들을 이루어가며 함께 기쁨을 누리시기를 기원합니다. 본교를 향한 여러분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분명 여러분은 사망감이 충만한 능력 있는 일군으로 성장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학장 약력

- ◆웨스트민스터신학교 학장
- ◆사단법인 기독교학술원 이사장
- ◆세계원주인 선교회 회장
- ◆글로벌 평생 교육원 원장
- ◆국제기독교지도원회 총재
- ◆전원중앙교회 담임목사
- ◆저서 성경개론 외 다수

설립 목적

본교는 신구약 성경은 정확 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이며, 신앙생활의 유일한 법칙으로 믿고, 보수적 개혁주의 신앙의 정통성에 입각한 초교파 신학교로써,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세계선교와 목회사역 및 지도자로서의 사역을 감당할 참신한 일꾼을 양성함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제출 서류

①입학원서(본교양식)1통 ②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통 ③주민등록등본 1통 ④여권사진 3매 ⑤편입생은 성적증명서 1통 추가

전형 안내

· 전형기간 : 12월 ~ 2월(봄학기), 6월~8월(가을학기)
 · 전형방법: 서류전형 / 신앙면접

특 전

· 본원 소속교단으로부터 남,여 목사안수를 받습니다.
 · 성적 우수자 및 신앙심이 투철한 자에게 각종 장학금혜택 제도가 있습니다.

모 집 학 과

과 정	학 과	기 간	자 격	비 고
학 부	신 학 과	8 학기	고졸 및 동등이상 학력의 세례교인	목회자 및 연구과정
	선교학과			선교사 준비
	상담학과	6 학기	중졸 및 동등이상 학력의 세례교인	각계에서의 상담활동
대학원부	무용학과			댄싱워십 선교 및 다양한 활동
	통신과정	별도 상담에 의하여 과정 및 학기를 결정함		
대학원부	상기의 전학과	M.Div.6학기 기타 4학기	학부 과정을 필한 자	목사안수 및 지속적 학문연구
학 술 원	해당학과	4~6학기	면접 및 심사 후 해당 학위 가능한 자	권위 있는 해외 신학교와 연계하여 과정을 이수함.
편 입 생	각 학 과	1~3년	타 신학교 중퇴 또는 이수자 혹은 통신과정 후 편입가능	편목과정은 별도로 있음

이번학기 교수진

정기환교수(조직신학) : (D.R.E., Th.D.)延世大學校 敎育大學院 (美)Trinity Theological Seminary
 장광용교수(고대근동학) : (Ph.D)(美)University of Sydney (美)University of London
 이현우교수(이스라엘역사) : (Ph.D)서울大學校大學院 (美)Columbia University
 권맹철교수(변증학) : (Ph.D)서울大學校大學院
 Torch Trinity Graduate School of Theology
 정철성교수(구약신학) : (Th.D)(獨)Ruhr-Universität Bochum
 이철원교수(교회정치) : (Ph.D)(美) School of Bible Seminary
 최병관교수(비교종교학) : (Th.D)(美) Life University
 박광보교수(주교교육) : (D.D)(加)Canada Christian College
 박종철교수(목회상담학) : (Th.D)長老會神大學校大學院
 박종혜교수(가정상담학) : (D.C.C)(加)Canada Christian College
 박상국교수(교회음악) : (D.S.M)(伊)Lucio Campiani 國立音樂院
 안병삼교수(교회행정) : (Th.D)(加)Canada Christian College
 이화순교수(선교학) : (D.D)(美)Reformed Theological Seminary
 정현모교수(선교언어) : (中)中國南京大學校, 韓國外國語大學校大學院
 Charles McVety(교회사): (D.Lit)(蘇)St.Petersburg State University
 John Wesley Tobey(히브리어) : (Th.D)(加)University of Toronto
 Rondo Thomas(조직신학) : (D-CPC)(加)Canada Christian College

주소 :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동 617-4
 ※부개역 2번출구 송내역 방향 200m 지점 대평프라자 5층
 ※주차장은 건물 뒤편으로 오시면 지하주차장으로 들어 오실 수 있습니다.

대표전화 : 032)323-5552, FAX : 032)322-0099
 ● H · P : 010-2956-9191 야간 : 032)321-9109
 ● E-mail : Keyone209@hanmail.net

정통신학의 요람 Westminster Theological Seminary
웨스트민스터신학교

연합총회 이사장 양정섭 목사 신년사



총회장 양정섭 목사

2012년 대망의 새해를 맞이하여 사단법인 한국기독교개혁교단협의회와 사단법인 한국개신교교단협의회의 가입교단 총회장님, 총무님과 임원들과 동역자님들과 함께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그리고 사단법인 한국기독교개혁교단협의회와 사단법인 세계개혁교단협의회와 사단법인 한국개신교교단협의회화산하 가입교단 총회 모든 교회와 동역자 및 교역자님들과 사모님과 가정위에 새해를 맞이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함께 하셔서 늘 건강하시고 부흥의 물결이 넘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나라도 국가적으로 선진국(O.E.C.D) 대열에 동참하는 한편 발 빠르게 발전하며 특별히 국회의원 선거와 대통령 선거 등 많은 중대사가 있는 중요한 시기를 맞이하였습니다.

우리 사단법인 한국기독교개혁교단협의회와 사단법인 세계개혁교단협의회와 사단법인 한국개신교교단협의회는 많은 역경의 세월을 뒤로한 채 새해를 맞이하게 되었고, 새 시대의 새로운 새 소망의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지금까지 가입교단 총회장, 총무님들과 여러 동역자님들의 사단법인 한국기독교개혁교단협의회와 사단법인 세계개혁교단협의회와 사단법인 한국개신교교단협의회화 산하 가입교단 총회 모든 교회와 동역자 및 교역자님들과 사모님과 가정위에 새해를 맞이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함께 하셔서 늘 건강하시고 부흥의 물결이 넘치시기를 기원합니다.

때로는 추운 날씨에도 묵묵히 맡겨진 거룩한 타전에서 열심히 땅을 흘려 사명을 감당하며 사단법인 한국기독교개혁교단협의회와 사단법인 세계개혁교단협의회와 사단법인 한국개신교교단협의회화 산하 가입교단 총회 모든 교회와 동역자 및 교역자님들과 사모님과 가정위에 새해를 맞이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함께 하셔서 늘 건강하시고 부흥의 물결이 넘치시기를 기원합니다.

역자님들도 계십니다. 이러한 분들이 있었기에 오늘날 사단법인 한국기독교개혁교단협의회와 사단법인 세계개혁교단협의회와 사단법인 한국개신교교단협의회화 산하 가입교단 총회 모든 교회와 동역자 및 교역자님들과 사모님과 가정위에 새해를 맞이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함께 하셔서 늘 건강하시고 부흥의 물결이 넘치시기를 기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2012년 대망의 새해를 맞이한 줄로 믿습니다.

새해에는 이사가 41강 8-16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이 우리 사단법인 한국기독교개혁교단협의회와 사단법인 세계개혁교단협의회와 사단법인 한국개신교교단협의회화 불드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되는 사단법인 한국기독교개혁교단협의회와 사단법인 세계개혁교단협의회화 산하 가입교단 총회 모든 교회와 동역자 및 교역자님들과 사모님과 가정위에 새해를 맞이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함께 하셔서 늘 건강하시고 부흥의 물결이 넘치시기를 기원합니다.

2012년 1월 16일 사단법인 한국기독교개혁교단협의회 이사장 양정섭 목사

한편 예장정통총회 총회장 양정섭 목사는 지난 1월 9일 서울시 구로구 구로1동 총회산하 평안교회에서 100여명이 모인 가운데 성대하게 신년하례 감사 예배를 드렸다. 북부노회 총회장 양정섭 목사 인도로 예배가 진행되어 중앙노회 노회장 이영춘 목사의 기도, 인도자의 성경(사도행전 1장 6-14절)을 봉독하고, 총회장 양정섭 목사는“새 출발의 역사”라는 제하의 말씀을 선포했다.

이어 인도자의 광고가 있는 후 총회장 양정섭 목사는 2012 올 한해 회원확보로 배가운중에 역점을 둘 것을 강조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쳤다.

식이 강한 신앙, 하나님만 바라보는 관용의 신앙생활을 했으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앙 생활을 강조했다.

포항시 기독교기관 대표회장 및 포항성시화운동본부 회장으로 취임한 서임중 목사(경안신학대 학원대학교 총장)는 취임사를 통해 “포항 성시화운동본부의 헌신으로 포항의 복음화율이 20퍼센트를 상회하고 있다.”고 성시화운동본부 지도자들을 격려하고 “제가 자신이 요셉과 같은 신앙 생활을 해서 포항 땅이 살맛나는 거룩하고 행복한 도시가 되도록 힘쓰겠다.”고 다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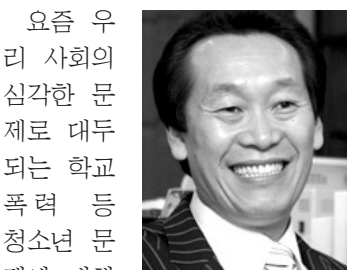
이어 세계성시화운동본부 공동총재 전용대 장로는 축사를 통해 “대구지검 검사장으로 재직할 때 서임중 목사님께서 오셔서 기도해 주시고, 지도해 주셨다.”고 감사를 표하고 “포항이 복음도시, 사랑의 도시, 희망의 도시를 만드는 일에 더욱 힘을 모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포항지역 국회의원인 이병석 장로도 서 목사의 회장 취임을 축

2012년 전국 청소년 겨울 성령캠프의 뜨거운 현장

“뜨겁고 열정적이었습니다”

“울며 부르짖을 수 있었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너무 좋았습니다.”



강사 설동욱 목사

요즘 우리 사회의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는 학교 폭력 등 청소년 문제에 대해서 익명의 선교사는 전 세계에서 가장 착하고 순수하면서도 가장 완악한 것이 대한민국의 청소년들이라는 말을 할 정도로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의 청소년들을 섬기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키려는 목적을 가지고 진행된 'New Mission 2012 전국 청소년 겨울 성령캠프' 현장의 열기는 그 어느 때보다 더욱 뜨거웠다.

이번 성령캠프는 목회자사모신문(이사장 피종진 목사, 발행인 설동욱 목사)이 주최하고 CTS기독교TV, CBS, febc국동방송, 국민일보가 공동 후원하여 1차 1월 9일(월)~11일(수)까지 2차 12일(목)~14일(토)까지 총 2차에 걸쳐 경기도 평택 오산 성은동산에서 진행된 청소년 전문 캠프로 강사로는 김문훈 목사, 홍민기 목사, 김인환 목사, 다니엘김 선교사, 크리스티김 선교사, 천관용 목사, 김현철 목사, 김동환 목사, 문대식 목사, 임우현 목사, 이선일 원장, 설동욱 목사 등 한국 최고의 청소년 전문 강사들이 대거 참석해서 강력하고 뜨거운 메시지를 선포했고 최인혁, 소리엘, 춤추는 예배자

PK, 등의 CCM 콘서트를 통해 청소년들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었다.

청주주립사랑교회 한영은(고2) 학생은“강사분들 말씀이 너무 은혜가 되어 나를 돌아볼 수 있게 되었고 기도가 잘 되었습니다.”라고 했고 성광교회 신원희(고3) 학생은“다른 캠프를 가면 두 번째 날이나 첫날 저녁이 돼서야 은혜가 되는데 이번 캠프는 낮에 오자마자 은혜가 되어 너무 좋았고 강사님 목사님들이 너무 좋고 은혜롭습니다.”라고 했으며 수원베렐레교회 임예희(고3) 학생은“설교 말씀이 너무 좋고 마음에 와닿는 내용이 많았고 주님이 내게 말씀하셨습니다.”라고 했다.

열린교회 김효민(고1) 학생은 “다니엘김 선교사님 말씀이 너무 은혜가 되었고 기도 시간에는 같이 울며 부르짖을 수 있었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너무 좋았습니다.”라고 했고 세계로교회 김수연(고2) 학생은“지금까지 체험하지 못했던 성령님을 체험하게 되어 너무 은혜스러웠고 뜻 깊은 시간이었습니다.”라고 했으며 더욱사랑교회 장원준 교사는“비전에 대해 확실히 보여주셨고 더 간절하게 해주셨습니다.”라고 했다.



회장 취임은 계기로 포항성시화운동이 한 단계 더 도약할 것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다.

대구성시화운동본부 대표본부장 황용대 목사도 축사를 통해 “서 목사님은 카리스마가 강하면 서도 가슴이 따뜻하고, 마음이 열려 있는 분”이라며 “포항성시화운동이 포항시의 건강성을 회복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기독교가 희망의 종교임을 드러내는 데

최선을 다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포스코로 상징되는 철강의 도시, 한국 경제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해온 인구 51만의 포항시는 하루 평균 11.5명이 출생하고, 7.4명이 사망하고, 8.2쌍이 혼인하고, 3.1쌍이 이혼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범죄율은 하루 평균 54.5건, 쓰레기 배출은 611.8톤, 교통사고율은 하루 평균 14.2건으로 나타났다. 특히 복음화율은 지난 2005년 통계청 조사에 의하면 15퍼센트, 율령군 32퍼센트, 청송군 16퍼센트, 김천 15퍼센트 등과 함께 경북지역에서는 비교적 높은 퍼센트를 나타냈다.

저지스티임즈

www.JTNTV.kr 기독교인터넷방송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서울다-07837(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한다)

대표고문: 피종진 목사 이사장: 정기남 목사 사장: 소전우 목사 발행인: 정기남 목사

전국 20개 지사 / 해외 13개국 지사

▶주소 :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고강동 574-10 대운빌라 1층 제2호

▶E-mail : jtpress@hanmail.net

▶전화 : 032) 672-3031(팩스겸음) ▶직통 : 070) 8230-0034

▶H.P : 010) 5468-6574

▶정성을 다한 후원금은 도시 농어촌 미자립교회와 해외지사에 신문을 보내는 선교사가 됩니다. 문서선교에 후원이사가 되어 주십시오.

▶1구좌 후원금 10,000원부터~

▶1년 구독료 : 40,000원

▶후원계좌(예금주 : 정기남)

하나은행 670-110405-00108 / 농협 455030-56-005509

내 인생을 갇아먹는 사탄의 견고한 진에 대한 보고서

「매면 매이고 풀면 풀린다」

최성관 목사

대망의 2012년, 일단 매인 것을 풀고 시작하자! '풀면 풀린다.' '당신을 화나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당신은 무엇 때문에 그들과 자주 충돌하는가?' '당신에게서 축복을 차 버리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당신도 알지 못하는, 당신 안에 숨겨놓은 사탄의 요새가 있다.' '모르면 당한다. 알면 승리한다.' 누구에게나 마음의 상처는 있다. 그러나 대부분 그 마음의 상처를 해결하지 못한 채 성장한다. 그렇게 상처받고 성장하고 성장하여 상처받는 동안에 사탄은 우리 인생에 견고한 진을 만들어낸다. 이 책은 내 인생의 지옥의 문(마16:18), 내 인생의 손 뿌리(마12:15), 사탄의 견고한 진(고후 10:4) 그리고 Soul Ties(마16:19, 18:18)에 대한 이야기이다.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자유하지 못하고 무엇인가에 매여 살았던 최성관 목사의 솔직한 이야기이다. 그가 성령으로 거듭나서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탄은 자신만의 통로, 그 지옥의 문을 만들어놓고 철저하게 최 목사의 인생을 유린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작 그 자신은 전혀 그것을 알 수 없었다.

최 목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찾는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그의 삶은 더 엉망이 되었고, 그때마다 고통은 커져갔지만 인생을 향한 사탄의 정체를 전혀 알 수 없었다. 그때, 최 목사는 철저히 미움과 분노와 거역함으로 어둠 가운데 있었고, 그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고 살아왔다. 저자 최성관 목사는 망하고서야 비로소 내 인생을 갇아먹은 사탄의 견고한 진을 발견할 수 있었다. 자유하기 시작했다. 일단 사탄의 견고한 진을 발견하면 결국도로 그 위력은 약화된다. 그러므로 이제 교회 개혁 10년을 마감하면서 겪는 그 엄청난 죽음의 고통, 실패했다는 두려움 속에서 발견한 사탄의 견고한 진. 망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발견할 수 없고 결코 알아채릴 수 없었던 사탄의 견고한 진에 대한 솔직한 그의 고백을 통해 우리 자신을 돌아보자.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최 목사의 망한 길을 걸을 필요는 없기 때문이다.

용서하지 못한 채 온갖 인생의 쓰레기를 안고 마침내 사탄의 견고한 진에 매여 살아온 저자의 실제 내용이 간증처럼 기록됐다.

-한국기독교대표회장길재원 목사-

성공을 말하는 많은 책들이 시중에 있다. 하지만 자신의 실패를 과감하게 털어놓은 책은 이 책이 유일하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장 이기창 목사-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욕망과 연약함의 탓에 빠져 사탄의 매임에 포로 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본서는 우리 현대인이 이러한 매임에서 어떻게 극복될 수 있는지 그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송신대 정영웅 총장-

그녀가 왜 천국으로 묶여있는지 알 수 없었지만, 천국에서 묶여있는지는 알았다. 그래서 내 아내와 그녀는 함께 누가복음 4장 18절과 19절을 읽고, 이 묶임과 두려움에서 벗어나도록 하나님께 기도했다. 영수중에 묶여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께 이치고, 이 묶임에서 자유하게 해 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다. 천국에서 묶여 놓고 그녀의 삶을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도적놈(사탄)이 물러나기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자유를 선포하였다.

이제 더 이상 하늘을 울리고 애쓰지 말라, 주님은 이 땅에서 사용할 수 있는 하늘의 열쇠, 천국열쇠를 주셨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서 그 열쇠를 사용해야 한다. 이 땅에서 풀어야 한다. 우리는 이 땅에서 무슨 사명을 지녔다.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인다' 그러나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 그러므로 땅에서 풀자. 그러면 하늘에서는 자동적으로 풀린다.

내 인생을 갇아먹는 사탄의 견고한 진에 대한 보고서

「매면 매이고 풀면 풀린다」

최성관 저서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인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다. 하늘에 묶여있는데도 풀린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주님은 이 땅에서 풀어야 하늘에서도 풀린다고 믿으셨다. 그러므로 풀고자 하는 열쇠는 이 땅에서 풀어야 하는 것이다(마16:19)

내 인생

[문의] 010-4692-5676, 02-848-0108

“선교회 수익사업으로 안성맞춤이네”

— 선한사람들. 발아생식, 곡식출시 선교자금 후원예정 —

상황버섯물로 발아시킨 고기능성발아곡식 제조방법을 특허 출원해 화재가 되고 있는 발아식품전문기업 선한사람들(대표 김상용)이 신년을 맞아 각 교회선교회별 수익사업을 위한 발아생식과 발아곡식 상품을 출시했다.

이번에 출시된 제품은 상품 중 눈에 띄는 제품으로는 선한발아생식을 꼽을 수 있다. 이 제품의 경우 바쁜 현대인들을 위한 한 끼 식사대용은 물론이거니와 특히 다이어트, 허약체질, 수험생, 병약자 등에게 면역력 및 기초체력 증강에 유용한 최고의 건강식품으로 알려져 있으며, 소비자들의 가격부담을 줄이기 위해 기존 15만원대의 가격을 대폭 할인해 10만원 이하의 가격으로 출시한 것이 특징으로 가격을 낮추어도 기존의 제품과 품질 면에서는 전혀 차이가 없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선한사람들은 원재료의 구매 유통구조를 과감히 개선, 보다 신선한 원재료를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 소비자들에게 질 좋은 생식을 공급할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선한발아곡식도 기존의 1~2만원대의 제품을 가격부담을 줄이면서도 선물 및 답례용으로도 손색이 없는 5~8천원대의 가격으로 각각 개발, 각 교회 선교회별로 수익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상품으로 기획했다.

특히 일정량 이상 주문시 원하는 문구를 도안, 제작 서비스를 시행할 예정이어서 임직사나 헌당식, 결혼, 돌, 답례품으로 각광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김상용대표(목사, 충북노회)는 “건강에 관심을 기울이는 시대 저렴한 가격대의 명품발아생식과 발아곡식을 통한 전도회별 수익사업은 기존의 전도회보다 더 좋은 전도의 효과를 보실 수 있으며 지속적인 수익사업으로 손색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선한사람들은 발아생식이나 발아곡식을 구입하는 교회나 단체에 대해서는 별도의 선교기금을 후원할 예정이어서 교인들의 식습관을 성경화하는 회복운동과 함께 선교회의 선교자금 확보에도 유용할 것으로 보인다.

선한발아곡미

선한발아현미

[문의: 031) 847-5599]

웨신2012신년하례회 성숙한 교단을 다짐

웨민 이사장 한동숙 목사 동석, 웨신총회와의 관계회복을 다짐

『웨신총회 직영신학교 학장 정기환 목사는 여름성경학교 교사 강습회 및 청소년 수련회는 8월13일부터 16일(3박4일)까지 있게 될 예정 밝혀』

대한예수교장로회(웨신)총회는 지난 1월 5일(목)오전11시 서울시 성동구 성수2가 유니온 뷔페에서 희망2012신년하례회를 갖고 2012년 희망찬 새해 성숙한 교단으로서의 임무가 시작됐다. 부총회장 이재갑 목사 인도로 예배가 시작되어 회복서기 박영남 목사의 기도, 회계 허성인 목사가 노래미야9:7-10절을 봉독한 후 총회장 성홍경 목사는“이런 한 해가 되자”라는 제하의 말씀을 선포했다.

성 총회장은 신년 메시지를 통해 총회산하 주의 종들과 성도들에게 이러한 한해가 되었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축성하는 한해가 되기를 기원하면서 봉독한 말씀을 인용 아브라함처럼 축성하는 마음을 가졌다고 말하고, 하나님은 그 축성된 마음을 보시고,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허락하셨다. 그가 받은 축복은 땅을 주셨고, 말씀대로 이루어졌고, 기도를 들어주셨으며, 범사에 승리하게 하여 믿음의 조상이라는 명예를 얻었던 것처럼 우리 모두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인정받는 한해가 되기를 기원했다.

또한 웨신총회 산하 동역자 여러분은 끝까지 서로가 단합되며, 친한 우정을 갖고 이 세상의 사역을 마치고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뜻을 같이할 것을 주문했다.



성 총회장은 하례식 인사에서도 지난 한해를 거울삼아 2012년을 소중한 기회로 알고 꿈과 용기를 갖고 도약할 것을 기원했다. 아울러 성 총회장은 교세확장에 역점을 두겠다고 말하고, 총회 질서체계를 확립해 나갈 것을 밝혔다. 또한 금년 내에 웨신총회가 바로 서서 차기 총회부터는 은혜스럽게 모든 일이 진행되도록 힘쓰겠다고 하면서 이를 위하여 총회가 단합하자고 말했다. 이어 총무 신언창 목사의 광고에 이어 증경총회장 임철환 목사 축도로 1부 예배를 마쳤다.

서기 장창운 목사 사회로 2부 하례식이 진행되고 교단 원로, 임원, 노회장 일동이 2012 교단 발전과 화합을 위하여 나라와 민족의 안녕과 노회와 지교회가 부흥하는 염원으로 게익커팅을 갖는 가운데 150여 명의 목회자들이

은 서로가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라며 인사와 축복을 기원한 했다.

이어 부총회장 이재갑 목사는 교단 원로들을 모신가운데 사제금을 전달했으며, 새해를 단합된 모습으로 출발하자는 의미에서 기념 촬영한 후 한서노회장 이영풍 목사의 오찬기도로 만찬이 시작되었다.

한편 웨스트민스터신학대학원 대학교 이사장 한동숙 목사는 인사를 통해 웨신총회와 웨민과의 관계회복을 환영한다고 말하고 총회가 학교를 위하여 많은 신학생을 보내 줄 것을 부탁하면서 기도를 부탁했다.

이어 웨스트민스터 웨신총회 직영신학교 학장 정기환 목사는 교단과 신학교와 웨민과의 좋은 협력관계가 되었다면서 웨스트민스터는 한국교회 신학의 표준임을

소개하고, 신학생 모집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되면 학술원에서 협조해주는 분들이 많아서 100여 명 이상으로 업 될 것이라고 했다. 또한 몇 년 안에 새로운 모습으로 우뚝 설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 학장은 총회산하 각 노회가 학생 모집에 적극 협력해 줄 것을 주문하고 최선을 하겠다며 학사일정을 밝혔다.

또한 2012년 하절기부터는 학교를 통해서 여름성경학교 교사강습회를 갖게 된다고 말하고 또한 청소년을 위한 영적훈련에 적극 지원을 요청했다. 여름성경학교 강습회는 한국의 최고의 교수진들로 구성되어있다고 말하고, 강습회를 통해 진행되는 프로그램에 대해 손백두 목사가 설명했다. 청소년 수련은 8월13일부터 16일(3박4일)까지 있게 될 예정이다.

예복교회(소진우 목사) 임직감사예배 드려

장로1인 권사3인 명예권사9인 안수집사 2인 여집사 32인 등 임직

대한예수교장로회 예복교회(소진우 목사)는 지난 1월 15일(주일)저녁 7시 서울시 노원구 상계1동 소재 본당에서 1부 예배 후 임직식을 가졌다.

담임 소진우 목사 인도로 진행된 예배는 한광희 장로의 기도로 시작되어 인도자의 성경(골로새서 1:24~29절)봉독과 취임권사, 추대권사 일동의 특송이 있는 후 노회장 이동환 목사는“교회를 위하여”라는 제하의 말씀을 선포했다.

이어 소진우 목사는 2부 순서로 시무장로, 시무권사, 명예권사, 시무안수집사, 여집사들을 임직하고 공포한 후 임직패를 전달했다. 이어서 증경



담임 소진우 목사

노회장 김원준 목사가 권면을, 김웅기 목사(축복교회)가 축

사하고, 전승길 장로의 인사 및 광고가 있는 후 정기납 목사(저지스티타임즈 대표이사)축도로 마쳤다.

한편 이날 예복교회 소진우 목사는 전승길 장로(장로취임 1인), 이순희 권사, 조정숙 권사, 박경애 권사(권사취임 3인), 이재순 권사, 백복례 권사, 박연심 권사, 이귀례 권사, 류승희 권사, 이종욱 권사(명예권사 추대 6인), 양상운 집사, 문병선 집사(안수집사취임 2인), 이혜숙 집사 외 32명의 여집사를 임직하는 등 2012년 새해 새 성전 입당예배를 앞두고 교회부흥과 성장에 온 교우들이 힘을 모았다.



예복교회 임직기념



(사)대기총 신년하례 및 총재, 대표회장 취임

사단법인 대한기독교총연합회 교단 및 단체는 1월 6일(금)오전 11시 서울시 중구 을지로 롯데호텔 2층 에메랄드룸에서 2012신년하례 및 총재, 대표회장 취임식을 가졌다.

최문수 목사(예장 아가페총회 총회장)인도로 신년하례회 예배가 시작되어 육남식 목사(예장장신연합 총회장)가 기도를, 본회 방준홍 목사가 성경 시37편23-24절을 봉독하고, 지구촌교회 중창단의 특송에 이어 권오덕 목사(상임회장)는“하나님이 정하신 길”이란 제목으로 설교했다.

이어 특별기도에서 세계복음화를 위하여, 이목자 목사,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황재순 목사, 한국교회를 위하여 정낙천 목사, 대한기독교총연합회를 위하여, 이영숙 목사(총무), 대통령을 위



대기총신년하례

하여 최애현 목사, 남북통일을 위하여 남종석 목사 등이 나섰다.

또한 이날 이사장 이 선 목사는 총재 김원도 목사(예감웨슬레총회 감목), 대표회장 임원순 목

사(예감웨슬레협의회 이사장)에게 취임패를 증정했다.

이어 강기원 목사의 격려사, 이용철 목사(개혁 총회장)의 축사가 있었으며, 고문 허영무 목사 축도로 마쳤다.



대한예수교장로회

빛과소금교회

교회 표어 : 주님 내 안에 나 주님 안에

담임 이재갑 목사
본지 운영이사
웨신총회부총회장

2012 목회 지침
네 장막터를 넓히라 (사54:2)
성령의정막터를 넓히자-----은사
영혼구원의 장막터를 넓히자-세계선교
성경의 장막터를 넓히자 --- 성경
축복의 장막터를 넓히자 ---- 나눔

부목사 : 송승길
장로 : 박광순, 김혜자
전도사 : 임사랑 최원희 박에스터
협동전도사 : 김신애

(우)139-818 서울시 노원구 상계5동 169-198
☎ 02)938-3521, 010-3228-3521
(빛과소금교회 수양관) 경기도 가평군 북면 화악리 116-5

대한예수교장로회

온누리찬양교회

All Nations Praise Church

초대합니다.

찬양과 말씀 축복성회 영적으로 지치고
힘들며 아무도 위로가 되지 않아 낙심될 때에 괴로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곁에 주님이 계십니다.
당신을 사랑하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예·배·시·간
주일낮예배 주일오전 11:00
주일학교 주일오전9:00
주일저녁집회 주일오후 7:30
청년부예배 주일오후2:00
신앙기초회 매일오전9:00
학생부예배 주일오전9:00
축복성회 매주일 토 저녁9:00~
주요예배 수요일오후 8:00
배주주일 저녁7:30~

찾아오는 길
506-800 광주광역시 광산구 도산동 773-3호
☎010-4932-7277 070-7443-7277

담임 정대성 목사

담임 : 정대성 목사(선교사)
장로 : 최원영(선교사)
부목사 : 임찬미(선교사)
선교목사 : 조에스터 목사
협동목사 : 이종일(의료선교사/의학박사)
선교사 : 함다니엘, 황연화, 최미란
전도사 : 이부자, 전은혜, 정희선, 김혜정
안수집사 : 강보송, 유신성
천양지휘자 : 유신성 집사
반주자 : 정선미, 김진복, 박신애, 박시은

MTR-school 성경 연구원

구약(벤아세르 MT)과 신약(TR원문)에 의한 강의로 사도교회로 돌아가는 신앙인 교육

원장 김수정 교수

- 계시특원전
- 히브리어문법
- 헬라이어문법(전 준덕 교수)
- 알기 쉬운 52주 헬라이어문법 저자 강의
- 영어문법
- 계시특

- 일시: 2012년 2월 7일(화) 오전 9시 개강
- 장소: 송파구 오금동 118-20(2층)
- 문의: 02-409-3601, 070-4100-3601
- 후원: 작은 구름의집 선교회

성령부흥사회 신년하례에 대표회장 취임식 가져

대표회장 송인규 목사는 화목과 발전, 강단부흥을 다짐!

성령부흥사회 제3대 대표회장 취임감사예배 및 신년하례회가 1월 13일(금) 11시 서울대명교회에서 열려 부흥사회 발전에 회원들의 힘을 모으기로 했다. 이날 취임한 신임 대표회장 송인규 목사는 “부족한 중을 크신 하나님의 일군으로 세워주시니 감사할 따름”이라며 “회원들의 화목 아래 부흥사회가 발전하고 강단을 부흥시켜나가겠다는 다짐과 함께” 소감을 밝혔다.

또한 정바울 목사(밝은교회)는 이임사에서 “최선을 다해 주님 앞에서 열심히 일했지만 물러날 때는 역시 아쉬움이 남는다”며 “내가 못 다한 일들을 대표회장 송 목사가 이어받아 더 발전시켜나갈 줄

믿는다”고 인사했다.

이날 전영규 목사(성신교회)의 인도로 시작된 취임예배는 기도 에 김향숙 목사(은혜와사랑교회), 성경봉독(빌립보서 2:1-4절)은 신한식 목사(예인교회), 이어 피종진 목사(남서울중앙교회 원로)는 ‘성령의 교제를 이루는 사람’이란 제하의 말씀을 선포했다.

또한 유중현 목사(예장백석 총회장)는 “비록 늦게 시작해서 성령운동을 하는 후발주자지만 먼저 시작한 그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할 줄 믿는다”며 “오늘 취임하는 송인규 대표회장에게 축하를 전하면서 하나님에 큰 역사를 일으킬 줄 기대한다”면서 축사를 했다.



이어 강종일 목사(한기부 증경회장)와 성두현 목사(열린문교회)가 격려사를 전했고, 정바울 목사(직전회장)가 대표회장에게 취임

패를 전달 한 후 노형래 목사(사무총장)의 광고에 이어 총재 피종진 목사 축도로 마쳤다.

합천 가정 행복 상담소 개소해

합천지역 가폭, 성폭 예방 및 상담, 보호시설 “쉼터”부지 매입



지난 9일 오전 11시 경남 합천 합천읍 합천리 708-1 소재 ‘청소년 상담 지원센터’ 2층에서 “합천 가정 행복 상담소”를 개소했다. 본지 광영민사무국장, 합천군의회 김성만 부의장 등, 자문 및 운영위원들이 내빈으로 참석한 가운데 자리를 빛내며 축하했다.

이날 운영위원 이인규 목사 사회로 진행되어 1부 의식행사는 내빈소개, 개회선언, 경과보고, 이연화 소장의 인사 및 상담소 소개, 김성만 군의원과 이진출 군 노인여성과의장 축사, 남해 보물섬 가정 상담소

장 문경호 목사의 격려사, 이연화 소장의 자문 및 운영위원 위촉, 광고, 폐회로 마치고, 2부 헌관식순으로 진행되었다.

합천 가정 행복 상담소 이연화 소장은 합천 알곡교회 이성우 목사의 사모이다. 이 목사 내외는 일찍이 사회복지에 관심이 있어 자격을 취득, 이날 상담소를 개소한 이연화 소장은 인사에서 “경기 침체로 인해 가정 해체되거나 부모와 떨어져 사는 아이들을 수수방관치 않고 보듬으며, 가정폭력으로 상처받은 가족들과 학교에서 집단 따돌림과 폭행당하는 학



생들, 성폭력, 결혼 이주인 여성들과 다문화 가정, 알콜 중독, 인터넷 중독 등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상담, 군민 모두가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전개해 나간다는 소감을 밝혔다.

또한 이연화 소장은 향후 상담소를 통하여 가정폭력과 성폭력 피해 신고접수와 상담, 예방 및 방지와 홍보 그리고 보호시설을 필요로 하는 이들에게 시설인도 및 법률적 지원을 하게 된다. 의미 있는 것은 본 상담소가 합천군에서 첫 번째로 개소했다는 점이다. 경남

군청의 지원이 아닌 이 소장실장 이성우 목사 부부가 사재를 털어 상담소를 개소했다.

한편 쉼터부지 410평도 마련된 상태이며, 원만한 운영을 위하여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후원이 요청된다고 말했다. 특별히 저지스티임즈 합천지사장 이성우 목사, 대구지사장 박수영 목사, 사무국장 광영민 목사 등은 상담소에서 갖은 인터뷰를 가진 후 쉼터부지를 방문, 사역비전을 공유하는 귀중한 시간을 가졌다.

kdp0920@naver.com
경남합천에서 광영민 기자

한국기독교언론협회, 출범 감사예배

“정론으로 인정받는 권위 있는 기자상 구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우면서도 신속한 언론보도, 상호간의 협력과 친목, 단결을 도모하는 등 기독교 언론인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해 나가고자 창립된 한국기독교언론협회(회장 윤법석, 이하 협회)가 13일(금) 출범 감사예배를 드리고 헌장 발걸음을 시작했다.

윤법석 회장(크리스천해럴드)의 사회로 진행된 예배에서는 정기남 목사(JTN신문방송)가 대표기도 하고 박원영 목사(서울나눔목교회)가 “한국교회여 발람의 미친 행동을 멈춰라”(벧 후 2:10~22)란 제목으로 설교를 했다.

박원영 목사는 설교를 통해 “한국교회의 오늘날 가장 큰 문제점은 믿음이면 다 되는 줄 알지만, 순수한 믿음이 아니라 자기 주관과 자기 믿음으로 한국교회 교인들, 조직과 단체들을 이끌고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박 목사는 “오늘날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정도가 없어 보인다”고 말하고, 교계 신문 기자와 관계자들이 ‘계획’과 ‘기도’, ‘전문성’ 그리고 ‘끈기’를 갖고 교계 안팎에서 정론으로 인정 받아 권위 있는 기자, 권위 있는 언론이 되기를 바란다고 권면했다.



박병득 총무(기독교성결신문)는 협회 경과보고 및 광고를 통해 “이 협회를 발족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16일 63빌딩에서 발대식을 갖고 협의하면서 여기까지 왔다”고 설명하고, “언론인 여러 분들이 함께 간다는 생각을 갖고 방향성을 잘 잡아갈 수 있도록 의견을 바란다”고 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12개 교계 언론사들의 발행인과 편집국장, 평가자까지 모두 모여 협회의 시작을 축하했다. 협회는 한국 기독교 언론사의 발행인과 편집국장, 간부 및 평가자까지 모두 회원이 될 수 있도록 문을 열어 놓았다.

협회는 매월 셋째주 임원회 정

기모임을 통해 협회전반의 운영을 위한 월례회를 개최하고, 회원 전체가 참여하는 전체회의를 상, 하반기 년 2회 개최한다는 방침이다. 또 하반기에 개최하는 정기총회에서는 우수회원 시상을 계획하고 있다.

또 협회는 부설사업으로 임원회의 결의에 따라 목회자상과 아름다운교회상, 미자립교회 돕기운동, 소년소녀가장돕기 등 각종 공익적 사업을 시행할 방침이다. 협회의 임원명단은 다음과 같다.

회장 윤법석 국장(크리스천해럴드) 총무 박병득 국장(기독교성결신문) 서기 김성수 국장(기독인뉴스) 회계 이수미 부장(연합기독신문)

“서민들 된장찌개도 큰 부담 느껴”

호박 등 채소값 급등에 작년보다 30% 비용 증가

서민들 갈수록 살기가 힘들고 정치권은 고소고발로 짜증스럽게 하는 이때, 주요 채소류 가격이 새해 들어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대표적인 서민 음식인 된장찌개를 끓이는 비용이 작년보다 30% 가량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8일 롯데마트에 따르면 된장찌개 3~4인분을 끓이기 위해 된장(80g)과 호박 반개, 감자·양파·대파 각 100g, 고추 1/3봉지, 바지락 200g, 두부 반모, 고춧가루(10g)를 사면 작년에는 5천100원이 들었지만 올해는 이보다 29.4% 증가한 6천600원을 써야 한다.

이는 호박과 감자, 된장, 두부, 소금, 고춧가루 등 된장찌개 주요 재료가격이 크게 올랐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서울 농수산물유통공사에 따르



면 올해 들어 호박(주키니·10kg) 값은 작년 1월 평균 가격보다 154.7% 폭등한 2만3천180원에 경매가 이뤄지고 있다. 과거 10년간 평균 경매 가격이 1만원 전후에서 결정됐던 것과 비교하면 사상 최고다.

호박 가격이 크게 오른 것은 작년 10~11월 이상 고온 현상으로 꽃이 잘 피지 않았고 재배 면적 축소로 물량 부족 현상이 지속됐기 때문이다.

고추 역시 마찬가지다. 두 번째 수확 시기를 앞두고 물량이 일시적으로 감소한 요인도 있지만 최근 한파로 유통비 등의 원가 상승 요인이 발생해 풋고추(청양·10kg)의 경매가격은 작년 대비 무려 84% 오른 5만9천800원을 기록했다.

감자(수미 20kg)는 작년 동기보다 1.3% 하락한 2만4천600원에 거래되고 있지만 불과 한 달 전 가격(2만2천800원)보다는 8% 올랐다.

이는 제주도의 감자 재배 면적이 줄어들어 물량이 감소한 탓이다.

이밖에 된장과 두부, 소금, 고춧가루 등 된장찌개에 사용되는 주요 가공 식품 가격도 최근 크게 올랐다.

한편 롯데마트는 11일까지 제주 감자 100g을 25% 할인한 490원에 팔고 13~15일은 애호박 1개를 반값 수준인 1천원에 판매하는 행사를 할 계획이다.

대한예수교장로회 공덕교회

2012년 표어 :
성령의 은혜와 말씀이 왕성한 교회(행 6:7절)



담임 서명범 목사

담 임 : 서명범 목사(본지 운영이사)
시무장로 : 송두현 조길수 박성현
교육전도사 : 김민호

<예배안내>

주일예배 오전 11시 오후 2시
심야발 오후 8시 금요일기도회 저녁 9시

주소 : 충남 공주시 봉황동 295번지
전화 : 041)853-9966 855-0691
홈페이지 http://lov153.cafe24.com

대한예수교장로회 목포주안교회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이 설립하여 주신
주님의 교회임을 선언하며 다음과 같은 사명을 감당할 것입니다.



담임 모상련 목사

주일예배 시간 장소

요일	예배	시간	장소
주일	낮예배	1회 오전 7시 30분	3.4층 대 예배실
		2회 오전 11시 30분	3.4층 대 예배실
주일	저녁예배	오후 7시	3.4층 대 예배실
		오후 7시 30분	3.4층 대 예배실
주일	수요예배	오후 7시 30분	3.4층 대 예배실
주일	금요예배	저녁 9시 30분	3.4층 대 예배실
주일	새벽예배	오전 5시	3.4층 대 예배실
주일	청년부예배	오후 5시	5층 영산강홀
주일	대학부예배	오후 8시	5층 두란노홀
주일	유치부	1회 오전 9시 30분	2층 새롭방
		2회 오전 11시 30분	2층 새롭방
주일	유초등부	1회 오전 8시 30분	3.4층 대 예배실
		2회 오전 11시 30분	3층 아동센터
		3회 오후 2시 30분	3.4층 대 예배실
주일	중등부	오전 9시	2층 영산강홀
		오전 11시	2층 영산강홀
주일	고등부	오전 11시	2층 영산강홀
주일	영양예배	오후 1시 30분	5층 두란노홀

전남 목포시 북항동 1671-15 (북항주력단지)
대표전화 : (061)272-4908, (061)278-0692 팩스번호 : (061)278-0693

기독교대한성결교회 두란노교회



담임 박완국 목사
(신문방송 운영이사)

<예배안내>

주일오전 : 오전 11:00
주일오후 : 오후 2:00
수요일 : 오후 7:30
새벽기도 : 오전 6:00

기독교대한성결교회
두란노교회

충남 공주시 봉황동 96번지
전화 : 041-854-3676 H.P 018-320-1507

대한예수교장로회 평안교회



담임 장승현 목사
(본지 순설위원)

“가족같이 가정같이 평안하고
행복한 교회로.....”

충남 당진군 송악면 봉곡리 55-6
전화 041)356-0644, 팩스 041)356-0646
E-mail : sunghyun732@hanmail.net
H.P 011)9027-9712

“성경으로 본 건강학” 햇빛은 “건강의 금가루”!(36)

황성주 박사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요 3 : 20, 21)

1년 내내 흐린 날씨 탓으로 일광을 맞을 기회가 비교적 적은 구라파의 경우 햇빛은 건강의 금가루 만큼이나 귀하게 취급된다. 모처럼 갠 날 일광욕을 하기 위해 하던 일을 멈추고 모두 나와 햇빛의 고마움을 만끽하는 광경은 한국인에게서는 다소 충격적이다. 우리에게겐 맑게 갠 날이 많아 햇빛이 너무 흔한 탓일까.

화장품회사에서 지나친 햇빛이 피부암의 원인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과장되게 홍보한 탓일까. 아마도 생명의 생원료라고 할 수 있는 햇빛의 기능에 대해 철저히 무지한 탓일 것이다. 안타깝게도 여름철 내내 건강의 보고인 햇빛을 피해 병방문하러에만 응크리고 사는 사람이 의외로 많은 것 같다.

물론 “지나침은 모자람만 못하다”는

말처럼 과다한 햇빛의 노출은 피부암, 발적, 화상 등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그러나 이러한 원리는 비단 햇빛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닌만큼 “구더기 무서워 장 못담그는 일”이 있어서는 안될 것이다. 왜냐하면 햇빛이 주는 건강에 대한 유익함은 헤아릴 수 없이 많고 다양하기 때문이다.

햇빛은 중추신경을 자극하여 마음을 상쾌하게하고 눈에 흡수된 광선은 항우울성분인 멜라토닌의 분비를 활성화시켜 불면증 치료에 기여하며 각종 임파구의 수를 증가시켜 인체의 면역기능을 강화시켜준다. 전반적인 신진대사에 좋은 영향을 끼치는 물론 뼈의 성장에 기여하고 혈당을 감소시켜 당뇨병의 치료에 보조적인 역할을 하기도 한다.

지금은 소아과에서 보편화 되어 있는 자외선치료 역시 영국의 간호사들에 의해 신생아의 황달이 햇빛에 쬔면 회복되는데서 힌트를 얻었다고 한다. 음식을 보존하는 방법으로 햇빛에 말리는 건조법은 지금까지 인류가 개발한 가장 위생적이고 안전한 방법이기도 하다. 그리고 적당량의 햇빛은 피부를 윤택하게 하고 탄력성을 증가시켜 피부미용에도 좋다. 심심하게 살펴보면, 그리고 미인이 되려면 햇빛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리라.

이토록 심신의 건강에 유익한 햇빛을 가장 두려워하는 존재가 있다는 사실이 놀랍지 않은가. 이들은 각종 병을

일으키는 박테리아 곰팡이 바이러스 등이다. 햇빛은 이들에게 최대의 천적이며 최고의 살균제인 셈이다. 가장 무섭다고 하는 AIDS도 햇빛 아래서는 맥을 못춘다. 우리의 몸은 말할 것 없고 의복이나 이불 그리고 생활용품들을 정기적으로 햇빛에 노출시키는 것은 건강과 환경보전의 차원에서 바람직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세상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요 9 : 5)가 궁극적인 인간평가의 시금석이라는 것은 참으로 공평하다. 어차피 도덕성의 측면에서 도토리 캐제기인 불완전한 인간들에게 “빛을 사랑하여 빛으로 나왔느냐 어둠을 사랑하여 어둠에 머물러 있느냐”가 심판의 기준이 된다면 아무도 항변할 수 없으리라. 크리스천의 경우에도 진리의 빛 아래 끊임없이 자신의 인격과 생활을 비추어보는 사람과 죄에 미혹되어 진리의 빛을 점점 멀리하는 사람과는 천양지차가 있다.

모든 죄는 어두운 곳에서 생긴다. 인간의 온갖 부패와 추악한 행위는 밤에 이루어진다. 인격에 깊은 암흑이 있는 사람은 빛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그러나 진정한 구도자는 빛이신 하나님께 나올 수밖에 없다. 빛과 어둠을 동시에 사랑할 수도 없다. 분명한 것은 일단 빛을 사랑하면 어둠은 물러가게 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여기에 바른 신앙의 본질이 있고 죄악을 극복하는 비결이 있다.

통대협 창립 9주년을 맞아 통일교 척결 취선을 다짐

통대협 <통일교 실상 폭로로써 교계 경각심 고취에 앞장선 9년>

2003년 1월 23일 '한국기독교통일교대책협의회' (이하 통대협)가 올해로 창립한지 9주년을 맞아 더욱 새로운 의지를 다지며 통일교 척결을 위한 더 많은 활동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통대협은 그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이단인 통일교의 실체를 교계에 알리는데 주력했다. 또한 통일교에서 피해를 견디다 못해 탈퇴하는 탈퇴자들을 보호하고 예수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기독교에 개종생활을 돕고 지원하여 기독교의 선교 활동과 일꾼으로 양성하며 기독교 성도들에게는 통일교 피해로부터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보도와 홍보, 대처를 위해 설립되었다.

통대협 창립자인故 박준철 목사는 2004년 7월 20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까지 생존시에 기독교 신문·방송 언론 보도를 통해 통일교 실체를 낱알이 알려 교계에 통일교의 현 모습을 알리는데 앞장섰으며, 통일교의 실상을 알리고 교회가 대처할 수 있도록 모든 정보를 제공해왔다.

故 박준철 목사는 자신의 몸을 돌보지 않고 오직 많은 영혼을 살리겠다는 신념으로 기독교 목사와 성도들에게 문선명 집단의 비리와 비 진리성을 낱알이 폭로함으로써 통일교에 대한 경각심을 심어주어 회생자를 줄임으로써

이영선 목사
(통대협사무총장)

한국교회에 큰 변화를 일으켰다.

남편인故 박준철 목사의 뒤를 이어 통대협을 맡은 사무총장 이영선 목사는 지속적인 보도 활동과 상담 전화, 통일교 피해자 접수, 탈퇴자 교육, 통일교 관련 자료제공, 통일교 비리폭로 강의·간증사역 등 통일교 확산 방지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통대협은 창립이후 현재까지 전국교회를 대상으로 통일교의 이단성을 설명하는 자료를 배포하고 있으며, 피스컵, 피스타켓, 피스퀵 축구대회 중 지축구와 통일교 제품 불매운동 등을 전개해 왔다. 통일교를 탈퇴한 신도들을 대상으로 신변안전 확보와 신학 재교육활동 등을 전개하고 있다.

통일교대책협의회 사무총장 이영선 목사는“교회마다 게시판에 통일교 시설과 제품의 내용을 붙여놓고 대처할 수 있도록 하고 통일교의 포교확산에 대한 경계는 물론이고 성도들을 철저히 교육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통일교로 인해 기독교인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방지하고, 통일교의 실체를 널리 알려 그들의 행사를 막아내고 규탄하는 일에 온몸을 바쳐 일하겠다”고 다짐했다.

통대협 이영선 목사는 이어서“통일교를 방지하면 그 피해는 엄청날 것이기에 범기독교적인 통일교 문선명 집단의 대책에 관심을 기울일 수 있도록 통일교 대책 비관 간증을 마련해 줄 것”을 교회에 적극 요청하면서“통일교의 심각성을 인식하여 통일교를 뿌리 뽑고자 기독교 목사와 성도들은 지금이라도 다같이 한마음 한 뜻으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라고 호소했다.

9년 동안 한국 교회의 일선에서 묵묵히 역할을 담당해온 통대협, 앞으로의 활동을 위해 한국교회와 기독교 성도들이 더욱더 많은 관심과 기도, 후원

이 필요한 때다.

후원현금
계좌번호: 국민은행 044202-04-078236
예금주: 이영선(통일교대책협의회)

이영선 목사 간증초청
연락전화: TEL) 02-744-2422
H·P 018-214-7720

필리핀 Dagupan 레스토랑 신유역사

선교사는 어딜 가나 오직 복음 전하는데 생명을 걸어야

필리핀 다구판 소재 장례식장에서 선교사를 통해 신유의 기적을 베푸신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다구판에 Conquerors Breakfast Club에 Mr. Norman Velasco 회장의 초청으로 1월 둘째 주 토요일 아침 일찍 Pedritos 레스토랑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신유사역을 시작하게 하셨다. 종교나 종파에 상관없이 지역 유지들과 유명 인사들을 주축으로 아침식사와 함께 강사를 초빙하여 은혜의 말씀을 듣고, 서로 교제를 통해 사업의 영역을 넓히고 궁극적으로는 불신사회를 복음으로 정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도록 만들기 위한 모임이다.

President는 Mr. Ashok Vasandani이고 Vice President인 Mr. Ric Llamas는 짧은 격려사를 해주었다. Secretary인 Mr. Diego Ledda는 오늘 사회를 보았는데 아주 능숙하게 잘 이끌어 주었다. 회원이 모두 일어나 음악에 맞추어 Conquerors

Breakfast Club 단가를 힘차게 부르고 구호를 외쳤다. Mr. Norman Velasco 회장이 나에 대해 소개해 주었고 나는 인사말 대신에 짧은 복음 메시지를 강력하게 전했다. 주의 종과 선교사는 어딜 가나 오직 복음 전하는데 생명을 걸어야 하기에 이면체면 가릴 겨를이 없다.

찰스선교사(이경철선교사의 영어 이름)를 바라보면 그저 복음이 물씬 풍기고 사도 바울처럼 그의 손수건만 닿아도 치유가 일어난다는 이미지가 보이도록 메시지가 강력하게 전해져야 한다. 한번 복음전할 타이밍을 놓치면 좀처럼 기회를 잡기가 어렵다. 오늘도 첫 대면의 자리지만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가 예수님의 사람임을 증거 했다. 성령의 거룩한 역사가 비록 레스토랑이지만 각 사람에게 강하게 일어나고 있음을 느꼈다.

단체 활동을 마치고 몇몇 사람이 남아서 개인축복기도와 신유기도를 요청하였

다. Vice President인 Mr. Ric Llamas가 머리 통증을 호소하며 신유기도를 부탁하였다. 간절히 그를 위해 기도를 해 주었더니 머리가 맑아졌다고 환하게 웃었다. Electronic Engineer로서의 역할도 잘 수행하고 이 단체도 부사장으로서 맡은바 책임을 다하며 가족의 축복도 기도해 주었다.

뒤이어 프리랜서, 싱어 겸 아티스트인 Mr. Gilbert Terezo가 먼저 사람이 기도 받는 모습을 유심히 쳐다 보더니 자기도 평화와 정상적인 생활을 잘하도록 기도 부탁을 하였다. 온전히 주님 앞에 바로서기위해 자존심과 수치 등 모든 것을 내려놓고 기도 부탁을 하는 그의 모습을 보며 나도 많은 감동을 받았다. 사실 그는 게이였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새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는 그의 모습에 하나님의 마음도 흐뭇하시리라.

작곡가, 싱어이며 방송국 캐스터인 Mr. Anton Castro가 평화, 장수, 파워를



위해 기도요청을 하였다. 기도를 하는 가운데 혈관계통에 문제가 있음을 알게 해 주셨다. 예수님의 복음을 다시 한 번 정리해 전하고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시켰다. 가정의 분란으로 헤어진 가족들이 화합하고 다시 뭉칠 수 있게 기도해 주었다.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능력이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었다. 그의 어두웠던 얼굴이 환하게 변하면

서 두 손에 힘이 가득 쥐어짐을 느꼈다. 진정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그가 느끼고 있는 것이다. 이럴 때 복음 전하며 기도해주는 주의 종으로서 환회를 만끽하게 되고, 하나님께 더욱 더 영광을 돌리게 된다.

교회도 아닌 레스토랑에서 복음을 전하며 신유사역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복음 들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이미 정예군대를 보내셔서 사악한 무리들을 파하시고 당신의 종들이 마음껏 산지를 정복하도록 도와주신에 무한 감사를 드리며 후방에서 끊임 없이 후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는 모든 동역자님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살롬
필리핀 다구판에서 저지스타임즈 이경철 기자
(moses9191@hanmail.net)

대한예수교장로회(순장)총회

총회장
유영섭 목사
안천교회부총회장
지태영 목사
한빛전원교회부총회장
박종선 장로
동천교회서기
강 철 목사
대전교회회록서기
이재성 목사
신천교회회계
위용찬 장로
안천교회부회계
김선정 장로
대전교회시찰부장
권정희 목사
송덕교회시찰부장
박장복 장로
영암교회선교부장
김동민 목사
창대교회선교부부장
김일수 목사
동신교회선교부부장
김은태 장로
동천교회교육부장
엄광일 목사
한사랑교회교육부부장
서명조 목사
공덕교회고시부장
지태일 목사
새빛중앙교회재단부장
김인근 장로
송덕교회재단부부장
추영조 장로
신천교회재판국장
윤정현 목사
해맑음교회

총회주소 : 156-853 서울시 동작구 신대방1동 632-57 Tel : 02-845-7711 / Fax : 02-844-7711
H-page 문의 : 041-853-9966 E-mail:lov153@naver.com
Copyrights (1)2008, All Rreserved. 백암수양관 031)333-8047

대망의 새해 2012년
순장총회와 전국 각 노회,
지교회가 부흥성장하는
2012년이 되시며,
소망 넘치는 사역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총회장 유영섭 목사 외
임원 일동 배상

성경 원전의 문법공부로 성경의 맥을 바로 찾자

『종교다원주의에 빠져 십자가가 없는 성경으로 빛과 소금의 삶이 없어지고 있다』



원장 김수정 교수

마나타! 세상은 주님께서 다시 오실 징조가 처처에서 일어나고 있는 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믿음을 보겠느냐?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생깁니다. 그런데 믿음이 그리스도의 말씀에 의해 생기는 줄로 알았습니다. 이것은 사본 자체가 틀렸던 것입니다.

구약성경은 이스라엘 민족인 남자의 후손(유대인)을 택하셔서 그들의 언어인 히브리어로 기록케 하시고 보존 하시고 계십니다.

벤카임 맛소라사본(Ben Chayyim Masoretic Text, 1524~25년)이 1900년대까지 약 400년 동안 「표준 마소라본문」(BIBLIA HEBRACIA)으로 사용되었습니다. 현대에는 더 이전의 사본인 레닌 그라드사본을 벤 아세르가문에서 편집한 「표준 성경사본」(레닌그라드 B 19a 사본)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대교회들은 전 세계에서 키텔이 BIBLIA HEBRACIA(BH)에서 2만~3만군데를 편집한 것을(BHK 3판, 1937년) 자유주의 신학자들과 다시 편집하였습니다(BIBLIA HEBRAICA Stuttgartensia, BHS 1967년). 이것을「현대역본」으로 사용하여 각 나라에서는 성서 공회를 세워서 번역하여 역본성경으로 혹은 번역본 성경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신약성경은 이스라엘 민족 중 여자의 후손계열인 예수님의 제자들을 택하셔서 기록케 하시고 코이네 헬리어로 보존된 성경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로 보존케 하셨습니다. 더하거나 빼거나 오역(誤譯)하지 않은 신약성경은「수용본문」혹은「공인본문」

(Textus Receptus, TR)입니다.

그러나 현대교회들은 1881년 영국에서 웨스코트와 호르트가 13구절이 없는 사본을 편집하여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중에서 7절을 빼고(마17:21, 18:11, 마23:14, 막9:44, 46, 11:26, 눅17:36) 기록의 중요한 단어인 '피'(골1:14), '십자가'(막10:21), '거룩'(마25:31, 살전5:27, 뱀후1:21, 계18:20, 22:6) '정직' 등 삭제한 사본을 편집한 중립사본(WH)을 편집했습니다. 1898년 독일인 넬슨과 알란드가 중립사본(WH)을 다시 편집했습니다(NA판). NA판을 넬슨과 알란드의 자유주의학자들이 편지하여 UBS 1, 2, 3판과 GNT(4판)를 냈습니다. 이것을 각 나라에서는 성서공회를 세워 번역하여 역본성경으로 혹은 번역본 성경으로 사용하고 있다.

그러므로 현재 교회들은 '피'를 통하여 구속함에 이르는데 피가 없는 성경을 믿음으로 연합화하여 종교다원주의에 빠지고, 십자가가 없는 성경을 믿음으로 십자가는 제쳐 놓고 예수님을 따르므로 빛과 소금의 삶이 없어졌고, 거룩을 빼놓은 성경을 믿음으로 바벨화되

고 세속화되어 기복주의 공명주의 신앙으로 전락하였습니다.

이 시대는 영적으로 혼란한 시대를 만났습니다.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행하지 않으면 헛되이 믿는 것이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합니다. 성경대로 바로 알려면 성경의 뿌리가 하나님께서 영감으로 기록되고 섭리로 보존된 성경의 계열인지 사람들이 감동을 받아 기록한 성경의 뿌리에서 나온 성경인지 분별을 하여 선택을 해야 하며 또한 잘못 번역되어진 성경구절과 잘못 주석된 것에 의하여 설교를 하게 되면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이끌어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다소 힘들고 어려우나 원전의 문법공부를 하므로 하나님께서 전하시려는 뜻을 바로 깨달아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행하므로 헛되이 믿는 자가 되지 않아야 하겠습니까.

오역된 구절 - 6000군데 오역
히3:16; 모든 사람이 그러한 것은 아니었다. 뱀후2:5; 여덟 번째 사람인 노아 마21:28~31; 만아들과 둘째아들이 바림.

부천 예음중앙교회 설립예배 드려

대한예수교장로회(개혁)총회 예음중앙교회는 지난 1월 14일(토)오후 1시 경기 부천시 오정구 원종동 소재에서 담임 김도열 목사는 교회를 설립하고 감사예배를 드렸다.

심재술 목사(예음노회 회의록서기)의 인도로 예배가 시작되어 노회회계 김재복 목사가 기도를, 예음신학동문 박영림 목사가 특송을, 인도자의 성경 요한계시록 3:8절을 봉독이 있은 후 증경노회장 강선도 목사는 "하나님이 인정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이어 노회장 윤항기 목사가 예음중앙교회 설립을 공포하고, 예음신학동문 오일례 목사의 봉헌기도가 있었다. 아울러 노회장 윤항기 목사가 권면을, 박상덕 목사(예음음악신학교 교수), 한정수 목사(고강교회)가 축사를 했다.

또한 예음음악신학대학원동문들의 축하에 이어 이강춘 목사의 격려사가 있었으며, 교회담임 김도열 목사가 인사 및 광고를, 노회장 윤항기 목사의 축도로 마쳤다.

이날 김도열 목사는 설립된 교회를 소개했다.

예음중앙교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개혁)총회 예음노회에 소속되어있으며, 본교회는 영성 있는 찬양(찬양)으로 하나님을 찬양하



▲ 김도열 담임목사 부부



▲ 설립예배 드리는 모습

고, 경배하며, 말씀(교육)과 기도(성령충만)와 복음전파(전도)로 나눔과 기쁨이 넘치는 교회로서

개혁주의 신앙을 바탕으로 사도행전적 초대교회 신앙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교회라고 소개했다.

마닐라포럼! 영성집회-구정을 뜨겁게 달구다

구정을 맞이하여 1월 23일부터 25일까지 필리핀 울티가스 소재 홀리데이 인 호텔에서 마닐라포럼 준비 영성집회(필리핀 목회자 선교사 초청 말씀세미나)가 마닐라포럼위원회 주최, 말씀아카데미와 목회자성경연구원 주관으로 강사로 이희수 목사(군자대현교회 담임)를 초청하여 "교회안의 두 길"이라는 주제로 2박 3일간 120여명의 필리핀 선교사들이 모여 은혜가운데 마쳤다.

이희수 목사는 한세대를 졸업하고 웨이스 신학대학원 기독교교육학 박사요 순복음 부흥사협회 공동회장이며 말씀과 영성을 겸비한 강사로서 현재 CTS, CBS와 C3TV 설교가로 널리 알려져 있고 세계 선교에도 열정이 대단하여 2012 마닐라 포럼 대회

장 중 한분으로 내정되어 있다. 군자대현교회는 오직말씀, 오직예수, 오직믿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지키며 순종하는 교회', '역동적인 예배를 추구하고 드리는 예배'와 100개의 국내의 교회개척, 100배의 축복, 100명 이상 수용 가능한 실버타운 건설 등 '1 & 100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교회'라는 비전을 내어 걸고 경기도 시화지역에서 어려운 여건을 뚫고 날마다 부흥하고 있는 교회이다.

개회예배는 문주연 선교사(한선총 사무총장)의 사회, 이두선 선교사(남선협 증경회장)의 기도, 이희수 목사의 말씀, 임종웅 선교사(마닐라 포럼 사무총장)의 인사말, 박지원 선교사(북선협 회장)의 축사와 김관형 선교사(한선총 증경회장)의 축도로



마쳤다.

매 시간 강사의 간증을 곁들인 말씀은 선교지에서 말씀에 갈급했던 선교사들에게 강한 도전이 되었다. 구약과 신약을 넘나들며 천국과 지옥에 대한 말씀, 특별히 목회자들이 성도들에게 시험이 든다고 물질에 관한 설교를 약하게 하거나 피하는 경우가 많은데 신앙에서 다양하

게 물질관에 대해 예수님이 많이 언급하고 있지 않느냐며 우리가 제대로 가르쳐 성도들이 물질의 복을 많이 받을 뿐 아니라 믿음에 확실히 설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마닐라 포럼은 2009년 필리핀에서 시작하는 선교사들이 필리핀 선교와 아시아 선교발전을 위해 시작 되었다. 1차 마닐라

포럼은 '필리핀 선교발전과 도전'이라는 주제로 2009년 8월 10-13일 Great Eastern Hotel에서 개최하였다. 2012년 2차 포럼은 한국교회 해외선교 100주년 기념으로 '한국교회의 아시아 선교역사와 미래'라는 주제로 마닐라포럼 위원회 / KWAM[한국세계선교협의회]의 주관으로 2012년 2월 6일부터 9일까지 울티가스 디스커버리 호텔 /CCF에서 3박 4일간 있을 예정이다.

2012년은 한국교회가 최초로 타문화권 선교사를 파송한 1912년으로부터 100년째 되는 해이다. 마닐라 2차 포럼은 한국교회 해외선교 100주년을 기념하면서, 한국 선교사들이 활동하는 아시아 각국에서 '한국교회의 아시아 선교역사'(선교운동사)를 회고, 미래(선교미래학) 선교방향을 점검하는 선교역사 학술포럼의 성격을 갖고 열리며 한국선교의 과거와 미래가 소통하는 선교미래

학의 장이 될 것이다. 금번 마닐라 포럼을 통하여 이 시대에 살아있고 역사적인 한국인 선교 거장들이 대거 참여하여 토의되는 발제는 앞으로 마닐라 포럼이 한국형 로잔선교대회나 전략회의가 되기를 희망한다.

폐회예배는 최종삼 선교사(말씀세미나 준비위원)의 사회로 양창용 선교사((말씀세미나 준비위원장)의 기도, 이희수 목사의 마태복음 25장을 중심으로 열처녀와 달란트에 관한 설교와 임종웅 선교사의 축도로 마쳤다.

금번 영성집회를 성황리에 마치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강사로 헌신해 주신 이희수 목사와 함께 온 군자대현교회 성도들과 바쁜 사역을 마다않고 원근 각처에서 참여해준 선교사들과 주축한 마닐라포럼위원회 그리고 주관해준 말씀아카데미와 목회자성경연구원에 주님의 이름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필리핀 마닐라 울티가스에서 이경철 선교사(저저스타임즈 필리핀 지사장 central9191@hanmail.net)



대한예수교 장로회 향기로운교회

HGIROUN CHURCHa

표어 : 충성한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을 (요16:16)



담임 정일량 목사

담임목사 정일량, 유성은

예/배/시/간/안/내

주일오전예배	오전 09:30	11:00	수요기도예배	오후 8:00
영락원예배	오후 3:00		영락원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후 1:30		목요차유예배	오후 8:00
청소년부예배	오전 9:00		새벽기도회	오전 5:00
주일학교예배	오전 11:00		중보기도모임	월 오후 10:00

대/한/예/수/교/장/로/회 **향기로운교회**

☎032-814-7720 / 팩스 032-714-3131 010-9450-7591

주소:인천광역시 연수구 청학동 502-1(향기로운빌딩 9층 홈페이지 http://hgioun.onmam.com

장기요양기관(행복의집)



원장 : 박순중 목사

가족처럼

어르신(환자)을 모십니다.

(등급판정-1급-3급자 환영)

☎033)541-0687 / 010-7405-9191

www.1004tv.net

강원도 삼척시 도계읍 늑구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주사랑교회



담임 장한국 목사
(본지 운영이사)

- 선교사 : 김경자
- 강도사 : 장정훈 이진영
- 전도사 : 장성철
- 반주자 : 한진경, 한송이

예/배/시/간/안/내

예배	시간	예배	시간
주일 대 예배	낮 11시	주일학교	오전 9시
주일저녁예배	오후 2시	학생회	토,오후 5시
수 요 예 배	오후 7시30분	청년회	토,오후 6시
새 벽 예 배	새벽 5시	여전도구역예배	금,낮 11시
금요철야예배	밤 9시	남전도구역예배	매월토,저녁 6시

(우 473-080)

경기도 의왕시 내손동 748 대림프라자 7층

전화 : 031)424-7612

H.P : 010-4436-7060



담임 소진우 목사

로고스세계선교협의회 부총재
라이즈월드선교협의회 대표회장
저지스타임즈 사장
극동방송 칼럼리스트
CTS 칼럼리스트
백석TV 칼럼리스트
예복교회 담임



가정예배

1월, 주님과 함께하는 가정예배 소진우 목사 (예복교회 담임 / 본지 사장)

나보다 너의 유익을 그리고 너보다는 우리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고 구할 줄 아는 성숙한 가정들이 되어 그 다음을 준비하신 하나님을 체험하기를 소망합니다.

4. 도피성과 같은 우리가정

성경: 여호수아 20장1절-9절 찬송가 419장
도피성은 부지중에 사람을 죽인 자들이 복수자의 칼을 피하여 생명을 보존 할 수 있는 최후의 은신처입니다. 이처럼 어떤 의미에서 가정은 이 세상 가운데 있는 도피성의 역할을 합니다. 세상의 고통에서 피해 온 식구들이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공간입니다. 오늘날 우리 가정들 또한 힘들고 지쳐 있는 남편과 아내 그리고 자녀들이 맘 놓고 쉼과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사랑과 평안이 넘치는 가정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부부는 부부끼리 부모는 자녀를 사랑과 은혜로 보듬어 주는 도피성과 같은 우리가정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5. 만족과 감사가 있는 삶

성경: 여호수아 21장1절-3절 찬송가 360장
본문을 보면 레위지파가 자신들의 영토를 분배 받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받은 분량을 보면 이들 또한 광야생활 그리고 요단강의 도하 수많은 전투를 치렀지만 다른 지파에 비해 보상은 작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주어지는 배분에 감사하며 만족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신앙은 보상 받기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 만으로 만족하며 감사의 삶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 가정들 또한 보상을 받기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 만으로 만족하며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가정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6. 신실하신 하나님

성경: 여호수아 21장4절-42절 찬송가 400장
본문을 보면 레위지파의 자손들이 얻은 성읍을 기록한 것과 하나님의 언약하심이 이루어 졌다고 말씀합니다. 43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열조에게 맹세하시라 주마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충성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그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 합당한 풍요로운 복을 주십니다. 오늘 우리 가정들 또한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약속된 영원한 기업을 누리기 위해 항상 기도와 인내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가정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7. 이것이 봉사입니다.

성경: 여호수아 22장1절-6절 찬송가 216장
본문을 보면 이미 기업을 얻은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가 다른 지파의 정

작을 위해 7년간이나 전쟁에 참여합니다. 이들은 아무런 댓가도 없는 가나안 정복에 참여할 때에 그들 중에서 가장 민첩하고 가장 용감한 병사들을 골라 보냈습니다. 이러한 것을 볼 때에 진정한 봉사란 어떤 것인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진정한 봉사란 가장 좋은 것으로 헌신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가정들 역시 축복을 받기 위한 봉사가 아니라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며 감사와 감격이 있는 진정한 봉사가 있는 가정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8. 나누며 섬기는 가정

성경: 여호수아 22장7절-9절 찬송가 220장
본문을 보면 전쟁이 끝나자 전쟁에 앞장섰던 므낫세 반 지파와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이 길르앗으로 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귀향하는 목적은 본문 8절 말씀대로 '너희의 대적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희 형제와 나눌지니라' 라는 말씀을 지키고자 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가정들 또한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한 삶이 아니라 나누며 섬기는 따뜻한이 있는 가정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9. 속도보다 방향이 더 중요합니다.

성경: 여호수아 22장10절-20절 찬송가 374장
본문을 보면 르우벤과 갓, 므낫세 반 지파가 요단 가에 단을 쌓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그들의 후손들이 가나안 본토의 이스라엘과의 교제가 끊어지지 않기 위한 징표였지만 다른 지파들에게는 여호와를 등지고 우상숭배를 하려는 모습으로 보였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신앙생활에 있어 맹목적인 열심 보다는 분명한 방향이 매우 중요한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가정역시 방향없는 열심보다는 분명한 방향을 향해 한걸음씩 걸어가는 믿음의 가정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10.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성경: 여호수아 22장21절-29절 찬송가 390장
본문을 보면 오해를 받은 르우벤과 갓, 므낫세 반 지파가 오해를 풀기 위한 변호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2절 말씀을 보면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시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본래의 목적과 뜻을 알고 있다. 라고 변호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속사정을 모두 다 알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가정들 또한 신앙생활을 하다 뜻하지 않는 오해를 받아 낙심하지 말고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을 보고 위로받는 가정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11. 사랑의 실천이 있는 가정

성경: 여호수아 22장30절-34절 찬송가 324장

본문을 보면 르우벤과 갓, 므낫세 반 지파의 변호를 들은 이스라엘 지파들이 그들에게 가졌던 오해를 푸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어떤 잘못된 선입관이나 불쾌한 감정을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오해를 풀고 이해를 하며 관용을 베풀며 살아가는 삶이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 가정들 또한 좀 더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네 이웃을 사랑하고 품어줄 수 있는 사랑의 실천이 있는 가정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12. 하나님의 계획대로 순종하는 가정

성경: 여호수아 23장1절-5절 찬송가 384장
본문을 보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설교를 합니다. 그 첫 번째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즉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어떤 원수가 방해해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는 앞에 누가 있든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가정마다 세상 것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 가정 가운데 있느냐 없느냐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가정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13. 말씀대로 행하고 지켜라.

성경: 여호수아 23장6절 찬송가 203장
본문은 늙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하는 두 번째 내용의 말씀입니다. 6절 말씀을 보면 '모세의 율법책에 행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가나안의 문화는 상당히 타락한 문화였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문화에 물들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을 하고 정복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정복을 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가정들 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여 세속적인 문화에 지배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문화를 이 땅에 심으며 살아가는 가정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14. 하나님만을 섬기는 가정

성경: 여호수아 23장7절-16절 찬송가 450장
본문은 늙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하는 세 번째 내용의 유언입니다. 본문을 보면 '그것을 섬겨서 그것에게 절하지 말라' 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땅 위에 신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분뿐입니다. 이 땅 위에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자신 외에 다른 우상을 섬기는 행위를 용서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우리 가정들 역시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을 섬기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만물의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아가는 가정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죄 소멸의 자비

하나님은
우리를 완전하도록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불안정한 우리가 있는 그대로
다가오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의 죄와 허물로 치러야 할 죄값을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지심으로
소멸되도록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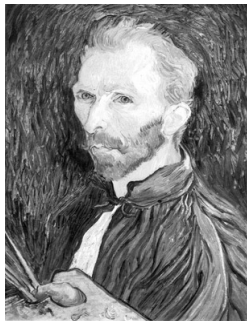
이 우주에서 먹고 살기 위하여 진
돈의 빛은 소멸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법을 어긴 죄값은 사라지지
아니합니다.
그러하기에 이를 풀어 사라지게 하는 길은
우리가 지옥일지라도 그 형벌을 치르든지
아니면 모든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속죄함을 얻는
것입니다.
이 진실의 법을 벗어난 우주의 법은 없습니다.
<이주연>

*하루 한단 기쁨으로
영성의 길 오르기*

목상은 매일 밤 떠오르는
달과 같은 것입니다.
늘 같은 달을 대하지만
마음은 새롭습니다.<연>

산마루서신 중에서



처음 사랑으로!
처음 믿음으로!

기독교대한감리회
효성중앙교회

www.myhyosung.net

인천광역시 계양구 마장로 546(효성동)
(인천광역시 계양구 효성2동 499-1)
Tel . 032)552-5200 Fax. 552-5204

담임 정영수 목사

기독교대한감리회
효성중앙교회

대한예수교 장로회
임마누엘선교교회

담임 현병우 목사
(본지 부사장)

주일예배 : 오전 11시 / 오후 찬양 2시
수요일예배 : 오후 7시
금요철야 : 오후 9시
월·화 영성사역 : 오전 11시 / 오후 7시

임마누엘선교 교회

부천대학 ← 남동초등학교 → 사당마을 아파트 → 북사골사거리 → 송내역

임마누엘 영성원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동 420-1
H.P 011-9710-9190

말씀으로 양육되고 성장하는 **대광교회**로 오십시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이다.(시96:6-9)

"준거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다. 만국의 족속들이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이다. 여호와께 돌릴지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이다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다."

예배안내

예배	시간	장소	비고
세례기도	매월제1주 5:30	본당	성경강해
주일 1부 예배	주일 오전 7:30	본당	
주일 2부 예배	주일 오전 10:00	본당	열린예배
주일 3부 예배	주일 오전 11:30	본당	
주일 4부 예배	주일 오후 2:00	본당	특별제1주제
주일 5부 예배	주일 오후 4:00	본당	청년예배
수요기도예배	수요일 오후 9:00	본당	철야기도회
각구별예배	각구별 제1주제	각구별 고구려	제1주제 1주제

교회학교 예배안내

부서	시간	장소	대상
유치부	주일 오전 11:30	별당 지하 12학년	취학전 아동
유년부	주일 오전 9:00	별당 지하 12학년	초등학교 1-3학년
소년부	주일 오전 9:00	별당 교육관	초등학교 4-6학년
중등부	주일 오전 11:30	별당 교육관	중학생 및 동년령
고등부	주일 오후 9:30	별당 교육관	고교생 및 동년령
청년 2부	주일 오후 4:00	본당	19-24세 미혼
청년 1부	주일 오후 4:00	본당	25세 이상 미혼

대한예수교장로회 **대광교회** 주소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양1동 1410-9
대표전화 : 031)384-7408 부목사실 : 384-9744, 385-8933

2012 베트남에 200교회목표, 대표회장 정재규 목사

국제사랑선교회 정재규 대표회장 2012년 KWMA 가입,
베트남에 173개 교회와 13개 병원 설립, 올해 200개 교회 목표



대표회장 정재규 목사
국제사랑선교회

국제 사랑 선교교회(대표회장 정재규 목사)는 신년을 맞아 한국세계선교협의회(KWMA)에 정식으로 가입하고 많은 선교단체들과 협력할 수 있게 돼 감사했다. 아울러 오지 곳곳에 교회와 병원을 설립하고 신학생을 배출하는데 있어 더욱 매진해 나갈 것을 다짐했다.

대표회장 정재규(시흥 대석교회·사진)목사는 “그동안 장로나 선교사를 중심으로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미얀마에 173개의 교회와 13개의 선교병원을 세웠다”며 “현재도 21개 지역에

서 교회가 지어지고 있고 베트남 호찌민에 세워진 신학교에서는 180여명이 공부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베트남은 사회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외선교사역이 금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NGO활동을 기반으로 하면서 경제에도 도움을 주는 교회건축은 반대하지 않습니다. 모두 열악한 상황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번듯하고 멋진 예배당을 지어주면 여간 기뻐하지 않습니다. 성도도 금방 늘구요. 이렇게 방방곡곡에 지어진 교회가 올해 안에 200개를 넘어설 것입니다.”

2010년부터 대표회장을 맡고 있는 정 목사는 자신이 시무하는 대석교회가 창립30주년을 기념해 2008년 100번째로 총회유 대석교회를 베트남에 건축했고 올해 3월에도 두 번째 지원한 베너체대

석교회를 봉헌한다. 정 목사의 딸도 베트남에서 15년 전부터 선교사로 활동하고 있다고 했다.

또한 “베트남에서 300석에서 1200석 규모의 교회를 건축하는데 보통 4만불에서 15만불 정도 건축비가 들어가지만, 그러나 건축비 30~50%는 그곳 성도들이 부담하도록 제안하고 있다. 그래야 교회에 대한 애착과 자부심을 가지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정 대표회장은 “선교회에서 지원을 많이 못하지만 현장에서 역동적으로 사역하는 장로나 선교사 때문에 많은 건축후원자들이 나시고 있다”면서 “앞으로 고아원 및 초등학교 건립과 더 나아가 국제종합대학 설립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앞서 소개한 4개국에 비라카미 지역이 있는데 미전도 종족이 300여 곳이 된다. 하지만 아

직도 의료시설이 부족하고 가난해서 이들을 위한 식량지원과 무료진료를 바탕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라며 포부를 밝히고 있다.”

한편 기독교신문동종양협의회 대표회장이며 국제사랑선교회 대표회장을 맡고 있는 정재규 목사는 현재 한국미협 자문위원이며, 화가로도 명성이 높다. 그는 할렐루야태권도선교단의 해외선교 후원금을 만들기 위해 작품전을 개최하는 등 판매 수익금 전액을 기부하고 있다. 아울러 세계스포츠타운선교회 대표회장을 맡고 있는 정재규 목사는 “선교는 예수님의 지상명령임을 크리스천은 한시도 잊어서 안 된다”며 “2012년은 국제사랑선교회가 선교영역을 크게 확산시키는 해가 될 것”이라며 큰 비전을 제시했다.

윤호균목사 CTS부흥협의회 3대총재 취임

대표회장으로 윤보환목사 취임

CTS부흥협의회 총재, 대표회장 추대 및 임원 취임감사에배가 16일 CTS 컨벤션홀에서 열렸다. 이날 총재로 윤호균 목사(화광교회), 대표회장에 윤보환 목사(영광교회) 등이 취임하는 자리에 500여명이 참석하여 축하했다.

총재로 취임한 윤호균 목사는 “하나님의 축복 속에 cts 부흥협의회가 설립된지도 벌써 8년이

지났다”며 “남산스튜디오 시절부터 함께 울고 웃으며 기도하고 손잡고 온 세월들이 고스란히 감격의 순간들로 가슴에 새겨 있다”고 밝혔다.

이어 “86개 교단이 연합하여 세운 cts기독교tv 노량진 사옥의 시대와 백만인기도운동 등 모두 다 은혜와 감격의 순간들이 아닐 수 없다”며 “이제 2012년 임진년 새해에 조직을 보강하며 감사에배

를 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고 전했다.

또한 “CTS와 함께 전 세계 땅끝까지 십자가에 피 묻은 복음을 전하며 부흥사역을 감시할 것”이라며 “총재 취임로서 단순한 명예직이 아닌 세계 선교를 위해 헌신하는 부흥협의회로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대표회장으로 취임한 윤보환 목사는 “큰 기회를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며 “총재 윤호균 목사님이 이끌어 가는데 힘이 되고 전 세계 부흥사들을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취임감사에배는 조영성 사무총장(목동우리교회)의 사회로 시작하여 지태영목사(수석상임회장)이 기도를, 조용기 목사(여의도순복음교회 원로)가 설교 메시지를 전했다. 또한 감리교 이규학 감독과 백석총회 유중현목사가 축사를, 감경철 CTS회장은 윤호균 총재에게 추대패를 증정했다.

이날 조용기 목사는 설교를 통



▲ 대표회장 윤보환 목사 부부

해 “세계 경제와 정치가 불안한데 우리 마음속에 평안과 안정을 가지고 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며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다”고 강조했다.

이어 “50년 묵회하는데 불안과 공포심을 이기는 것이 가장 힘이 들었다”며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더불어 살기 때문에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이다”고 피력했다.

또한 “50년의 묵회생활동안 가장 인상 깊은 것은 보혜사 성령을 알고 묵회를 했다는 것이다”며 “성령님만큼 우리에게 도움을 베풀어 주시는 성령을 의지함으로 우리가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다”고 전했다.

『탐방』 평창올림픽아호텔 대표 송광우 장로

하나님이 왜 허락하시나?

동해안 아파트(취미)에서

--> 동해안 리조트 + 평창 올림픽아 호텔

리조트 (사업) --> 청지기의 삶(사역)

민음의 경영자 송광호 장로는 큰 호텔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묵상한다면서 평창 올림픽아 호텔, 리조트를 소개한다. 이 호텔은 자신에게 큰 열매라고 말한다.

송 장로는 객실 50개의 호텔, 25평, 32평, 64평형 콘도객실 50개 등이 있는데 그가 운영하고 있는 시설 중에 가장 규모가 크고 잘 정돈되어 있다고 한다.

그러면서 송 장로는 이러한 엄청난 큰 시설을 운영할 수 있게 하셨을까? 하면서 임버릇처럼 말한 “한국교회 5만여 목사님들께 콘도를 하나씩 드리자,” “휴식과 안식을 통한 새로운 종전의 사역의 도구가 되고 싶다.”고 했는데 하나님은 이를 허락하셨다고 말한다.

현재 송 장로가 운영하고 있는 숙박 시설은 동해안 낙산사 근처 하조대 바닷가 앞에 있는 하조대소풍(www.hajodaebeach.co.kr)32객실이 있는데 이 객실은 호텔형으로 식당에서 식사를 해야 하는 사실이며, 50명이 예배드릴 수 있는 공간이 갖추고 있다.

또 진부령 알프스 스키장 앞에 알프스 글로빌(www.alps.ps.com)은 유럽형 별장펜션에 70객실이 있으며, 취사가 가능하며 식당도 있어 취사준비가 곤란한 분들은 준비된 식사를 할 수 있다. 40명이 예배할 수 있는 소강당도 갖추고 있다.

또한 설악산에는 하이더밸리(www.1708.co.kr)라는 시설이 있다. 객실은 50개, 이곳도 단체 200명 정도가 함께할 수

있는 식당과 야외 세미나장, 강당이 있다. 겨울을 제외한 기간에 이용하면 좋다.

게다가 강릉시 주문진 향호리 호수근처에 12객실의 강릉소풍(www.sopoongs.com) 시설이 있다. 이곳은 40평 정도의 소규모 단체가 이용하면 전 시설을 사용할 수 있다. 송 장로가 운영하고 있는 시설 중 가장 큰 시설은 평창 동계 올림픽 메인스타디움 알펜시아 앞 5분 거리에 있고 영동고속도로에서 서울→강릉방향 좌측에 있는 평창 올림픽아 호텔&리조트(www.olympiare.sort.co.kr)이다. 이 시설은 세미나장, 식당, 대형 연회실, 호텔 객실, 콘도객실을 골고루 갖춘 정숙급 시설이다. 올림픽과 관련된 많은 이용자들이 이용하고 있다.

그는 “내가 너에게 흑암 중의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어 있는 재물을 주어서 너를 부른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 알게 하리라”(이사야 45장 3절)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부자는 자신의 재산을 신실하게 관리할 사람을 찾고 있다.”는 말씀과 또 “하나님의 약속을 주셨어도 그래도 기도해야 한다.”(겔 36:37)는 말씀을 마음에 담고 있다는 것이다.

송 장로는 휴양관이 필요



▲ 평창올림픽아호텔



▲ 동해안 하조대소풍

세계최초 PC형 완전 칼라주보인쇄기

2011년 신제품!!

세계최초 PC형 3도 칼라주보인쇄기

8.5인치 대형 스크린

FORJEC엔진사용 분당최대150매
고정 직렬 헤드로 세계최고 150ppm
정당 인크비 20원(20%차트)

대용량 잉크로 대량생산
잉크(4EA) 이외에 별도의 소모품이 필요 없습니다.

ADF옵션
2단 4면, 3단 6면, 4단 8면
A 사이즈, 주보까지

최대적재 용량 2,500매

★ 세계 최고의 속도

분당 150매
시간당 9천매 생산
⇒ 작업시간단축

★ 저렴한 칼라비용

컬러유지비 80%절감
⇒ 장당 20원(20%원고)

★ 슬림하고 컴팩트한 디자인

⇒ 사무환경 최적화

★ Flexibility

최대 548mm 인쇄
⇒ 다양한 출력물제작

★ High Speed

150매/분(9천 매/시간)
⇒ 작업시간단축

★ One Pass Two Color

드림2개 동시장착
⇒ 동시 3도 인쇄

★ Color Performance

1컬라추가로 인지도 향상
⇒ 풀 칼라 구현 효과

★ Flexibility

최대291X412mm
(카드, 봉투, 엽서)
⇒ 다양한 처리능력

고생산성(High Speed)

- ① 분당 150매의 고속출력
- ② 3도 양면주보 500부 인쇄시간 9분
- ③ 칼라드림 교환 없이 동시 3도 인쇄
- ④ 고속, 낮은 코스트로 시간 비용 절약

고해상도(High Quality)

- ① 600dpi의 고 해상도 출력
- ② 이미지 및 작은 글씨도 선명
- ③ 독자 3도 인쇄기술로 칼라인쇄
- ④ 최대 인쇄 사이즈 291X412mm, 용지46~210g/㎡

세계최초!

세계최저!!

600~700만원 하던 기계들...

200만원대 출시기념!

가격은 흑백! 품질은 칼라!

이미 2,000여 교회와 사용하고 있습니다.
A3를 한번에 자동으로 양면을 컬러/흑백,
복사/프린트/스캔 가능한

슈퍼 복합기 ₩6,600,000

₩2,990,000



PC형주보인쇄기
비용절감 90% 처리속도 100배!!



세계 최초 1m 20 출력

주보 2단 4면, 3단 6면, 4단 8면(복사, 출력) 가능

인쇄 + 복사 + 스캔 + 팩스 = 하나로

동급 최고의 인쇄 속도를 지원하는

컴팩트한 디자인의

주보용 컬러 레이저 복합기 ₩890,000

중형제본 & 접지기
B5-A3까지 중형제본 접지
1명 이상의 주보, 교제, 책자 등
20매 80페이지 가능

주보접지기
2,3,4단 주보 한번에 접지
접하는 간편조절 가능
분량 12매 접지



주보 인쇄기 보급 5,000대,
전자등 디지털 컬러 주보 복합기 2,000대 기록 달성!
영광기업을 사랑해주신 교회와 목사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주)영광기업 대표이사 정학영 장로

H·P : 010-5779-0691, 010-3651-8572



주식회사 영광기업
Glory Enterprise Co., Ltd. **1588-0691**
www.jubol14.com

종로전시장 ※50여종의 기계가 전시되어 있습니다.

서울시 종로구 효제동 51-3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앞)

Tel, 02)764-5890~2 Fax, 02)764-5893 공장, 032)551-4114

예장합동보수(망원) 2012신년하례회 가져



총회장 황덕광 목사

대한 예수교장로회(합동보수)총회는 지난 1월 12일(목)오전 11시 서울 서초구 방배 4동 영광교회(원로 최광재 목사, 담임 최 현 목사)에서 2012년 신년하례회를 가졌다.

부총회장 유택열 목사 진행으로 1부 예배가 시작되어 이광훈 목사(부총회장)가 기도를, 아대성 목사(부회록서기)의 성경봉독(요한복음 2:13~16절)후 영광교회 찬양대의 특별찬양이 드러지고, 총회장 황덕광 목사는 “교회를 세우자”라는 제하의 말씀을 선포했다.

이어 1.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중부노회장 최은수 목사, 2.총회와 노회를 위하여 평서노회장 최병수 목사, 3.총회신학연구원을 위하여 부산노회장 김성호 목사의 특별기도가 있었으며, 회계 오

요한 목사의 헌금기도가 있었다. 이어서 황 총회장의 신년사가 있은 후 증경총회장 정재규 목사의 축사, 총회신학연구원장 강경보 목사의 격려사에 이어 교단 원로 목사들에게 새해 선물을 증정했으며, 신년축하 케익절단식을 가졌다. 이어 총무 이영욱 목사의 광고가 있은 후 증경총회장 이광일 목사 축도로 2012년 신년하례회를 마쳤다.

이날 총회장 황덕광 목사는 설교에서 “교회와 공동체는 교회를 섬기며 보살피는 지도자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 습이 되기 위해서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1.교회는 근본적으로 잘 세워져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교회의 주인 되시고, 반석위에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과 날마다 끊임없이 고백하면서 교회의 본질을 이해하는 것이라고 했다.

2. 교회는 주님이 값을 지불하시고 세우신 교회라고 말씀하고, 아



들 독생자를 부르셔서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교회를 세우셨으며, 그러므로 교회는 주님의 보혈의 언약 안에 있음을 강조하고, 마 21:28절에서 “이것은 죄 사람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눅22:20절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면서 새 언약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셨음을 전하고

3. 교회는 생명의 표적이 나타나야 하고, 4. 교회의 진정 표적은

진정한 사랑의 수고이며, 5. 교회의 목적은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 이라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기 위해서 오셨으며, 십자가의 중심에서 살아야 했고 십자가의 말씀, 십자가의 복음,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믿음, 십자가의 피가 그의 전부였다고 했다. 아울러 신년하례회를 통해 2012년에는 잃은 자들을 찾아가서 다시 회복하여 함께 우리가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나가는 한해가 되시기를 기원했다.

“화합과 일치, 소통과 공유로 나가자”

우리는 행복한 사람… “세계복음화 주도적 역할 다짐”

2012년 새해를 맞이하여 본 교단 총회가 지난 9일 오전 11시에 서울 장지동 임마누엘서교회(황상배 목사)에서 신년하례회를 갖고 한해에 “행복한 목회”로 세계복음화에 주도적 역할을 하기로 다짐했다. 총회임원과 전총회장, 상비부장, 위원회위원장, 전노회장, 노회임원, 협회기관장, 전국장로연합회 임원, 전국여전도회

임원 등 250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신년하례예배는 “살리는 신학, 세상을 살리는 교회”로서 사명을 다하고, 행복을 누리는 한해가 되길 소망하는 자리가 됐다.

총회 부총회장 정학재 목사의 사회로 열린 신년하례예배는 황상배 목사(임마누엘서교회)가 인사, 김중수 목사(서기)가 기도, 김효현 목사(부서기)가 성경봉독,



임마누엘교회 찬양단이 찬양, 총회장 조경삼 목사가 “우리는 행복한 사람”란 주제로 말씀을 전했다. 이어서 김영수 장로(회계)가 헌금기도, 나용화 박사(개신대 총장), 최정웅 목사(세계복음화전도협회 이사장)가 축사, 정해송 목사(총무)가 광고를 하고, 조경대 목사(개신대 이사장)가 축도를 했다.

예배 후 이어진 연석회의에서 조경삼 총회장은 현 한기총 상황을 설명하고 또한 2월 5일 총회 주일 세례헌금이 모두 동참해 줄 것을 부탁했다. 현 교단 운영과 대외 홍보를 위해 많은 자금이 소요 되는데 각 노회 교회의 협력 없이는 어렵다 말하고 모두가

참여해 달라고 덧붙였다.

이어 김동원 목사(전총회장)는 개혁신교단에 들어와 느낀 것은 이제 우리 공유하는 시대에 모두 함께 가는 것이다. 전 교인과 의논하고 같이 가는 교단이 되어야 한다. 개신대에서 목회자계속교육에 참여하고 공부를 하고 있다. 우리가 개신대에서 공부를 마치면 아무도 우리를 이단이라 할 수 없다. 개신대가 이단이 되면 몰라도 그럴 일은 없을 것이다. 진정으로 하나가 된 것이다. 라고 말했다. 그리고 세례교인 헌금에 모두 동참하라며 잘 낼 것을 확신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서 정인규 목사(전총회장)가 마무리 기도를 하고 마쳤다.

지저스타임즈 2012신년하례 및 이사회 열어

운영이사 6명, 상임이사 1명, 문화선교부 기자 1명 사령

지저스타임즈(대표이사 정기남 목사)는 2012 신년하례 및 1차 이사회를 서울 노원구 상계1동 1265번지 예복교회(담임 소진우 목사)에서 가졌다.

사무국장 광영민 목사(인천지사장)의 인도로 1부 신년감사예배가 시작되어 상임이사 이재갑 목사(웨신총회 부총회장)가 기도를, 운영이사 강신숙 목사(기독연예인부흥사협의회 대표회장)의 특별찬양이 드러지고, 사장 소진우 목사(예복교회)는 “그대도”라는 제하의 말씀을 선포했다.

이어 이사장 정기환 목사(전원중앙교회)의 인사의 말씀이 있었으며, 대표이사 정기남 목사는 신원대학 교수이며 하조대소송, 평창올림픽아리조트호텔 대표 송광우 장로, (주)전진유통(발효특수음자사민)운영이사 신문규 목사, 방송장영린공동체 대표 박희돈 목사, 기독교민운동총협의회, 국제사랑선교회 대표회장

정재규 목사(고문), 다음스피치센터 대표 전아 목사, 칼럼리스트 이준철 목사 등을 소개했다.

그 외 전국지사장과 직원, 이사장, 사장, 고문, 상임이사, 운영이사를 각각 소개하고, 김남수 목사, 이해숙 목사, 윤순희 목사, 박준민 장로, 정은섭 목사, 배문자 목사를 운영이사로, 방송장영린공동체 대표 박희돈 목사를 상임이사로, 선교/문화부기자로 김애림 자매를 사령하는 등 화기애애한 자리가 되었다.

이어진 특별기도에서는 신문방송사와, 13개국 해외지사, 전국20개 지사를 위한 합심기도와 운영이사 강정자 목사(뽕엘교회)가 기도가 있었다. 이어 부이사장 정대성 목사(온누리찬양교회)축도로 마



쳤다. 한편 중부지사장 박양우 목사 기도로 시작된 2012 제1차 이사회에서 이사장 정기환 목사는 구정기장 해외선교 중일정을 앞 당겨 귀국하여 이사회를 진행했으며, 올 한해 신문사와 인터넷방송을 통해 문서선교에 힘써 기도하며 후원으로 신문방송이 원활하게 운영되도록 힘쓰자고 했다. 아울러 제2차 이사회는 대구지사장 박수영 목사 주최로 3월 22일(목)~ 23일(금) 1박 2일간 있게 된다.



한국경목총회 신년하례예배 드려

한국경목총회 신년하례예배가 지난 2012년 1월 9일 오전 10시 30분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상기리 494번지 하나님이 디자인하신교회에서 드려졌다.

사무총장 홍향표 목사 인도로 시작된 예배에서 총회장 허식 목사가 신년사를 전했다. 부회장 유철규 목사가 기도했다. 이어 김창홍 목사(하나님이 디자인하신교회 담임)는 이사야 61장 1~6절 말씀을 주제로 “왕 같은 제사장”이란 제하의 말씀을



선포했다.

이날 한국경목과 경찰선교를 위해 박양우 목사(세계평화군단

사관학교 대전지부장)가 기도를 하고, 부회장 이정훈 목사 축도로 마쳤다.

소진우 목사 2010년-2012년 성회일정



담임목사 **소진우** 목사
PASTOR SO JIN WOO
H·P : 010-5267-1434
교회 : 02)3391-9676(대)

- 로고스세계선교협의회 부총재
- 라이프월드선교협의회 대표회장
- 극동방송칼럼리스트
- 백성TV칼럼리스트
- 지저스타임즈 사장
- CTS 칼럼리스트
- 예복교회 담임

늘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 교회와 동역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0년 8월	2010년 9월	2010년 10월	2010년 11월	2010년 12월
2-5 수도산기도원(이영미 원장)	5 천보산기도원(유택진 원장)	3 천보산기도원(유택진 원장)	1-3 신천장로교회(강형규 목사)	3 갈렙산기도원(임예제 원장)
8 천보산기도원(유택진 원장)	6-8 퇴계원장로교회(김동원 목사)	4-6 서북교회(배경락 목사)	8-10 경천교회(이원경 목사)	6-8 예수비전교회(김승업 목사)
9-12 성산수양관(윤호균 원장)	13-16 교단총회	13-15 평강교회(김기정 목사)	15-17 수원평안교회(김원구 목사)	13-15 형남교회(조성민 목사)
16-18 경성교회(이경선 목사)	15 정동교회(백현기 목사)	22-24 평강교회(김기정 목사)	22-24 평강교회(김기정 목사)	20-24 00선교지방문
23-25 진점오남지역 연합성회(이원경 회장)	20-24 인도선교집회(병철로)	26 교단총회	28 천보산기도원(유택진 원장)	26 천보산기도원(유택진 원장)
26 양평금식기도원(임기호 원장)	26-28 성산성결교회(안성기 목사)	28 천보산기도원(유택진 원장)	29-2 00선교지방문	27-29 논곡제일교회(소돈영 목사)
26-27 갈렙산기도원(임예제 원장)				
30~9.1 푸른초장교회(김종철 목사)				

2011년 1월	2011년 2월	2011년 3월
1/1 갈렙산기도원(임예제 원장)	31~4 캄보디아 선교대상회	7-10 성석교회(원재영 목사)
3-5 동탄사망교회(이주호 목사)	6 호창중앙교회(최복대 목사)	13-16 월계성교회(김복하 목사)
7 한일산기도원(이영준 원장)	7-9 순산반석교회(김형진 목사)	20 천보산기도원(유택진 목사)
9-15 신년특별축복성회(예복교회)	13 천보산기도원(유택진 원장)	28-31 은누리교회(조민철 목사)
13 갈리교단 제직세미나	14-17 성산수양관(윤호균 원장)	
16-19 성미음교회(권동호 목사)	20 한강중앙교회(최정우 목사)	
24 천보산기도원(유택진 원장)	21-23 미수교회(전종우 목사)	
24-7 갈렙산기도원(이목란 원장)	24 갈렙산기도원(임예제 원장)	
	원당소망교회(김영호 목사)	

2011년 4월	2011년 5월	2011년 6월	2011년 7월
4-7 천보산기도원(유택진 목사)	2-4 서울서지방여전도연합성회	6-8 소망관교회(이창환 목사)	4-6 새영교회(이영근 목사)
7-9 갈렙산기도원(임예제 원장)	9-12 갈렙산기도원(임예제 원장)	13-17 선교지 방문	10 신화성여름특별세미나
10-12 정기노회	15 천보산기도원(유택진 원장)	17(금) 갈렙산기도원(임예제 원장)	11-15 신화성여름특별세미나
12-14 장성교회(이광규 목사)	16-18 동대천교회(홍무열 목사)	20-22 생명나무교회(성근 목사)	18-21 소망기도원(연인애 원장)
17 천보산기도원(이목란 목사)	24-25 남양주독교연합성회(화정 이정근 목사)	26-7.2 심야특별기도대성회	23 갈렙산기도원(임예제 원장)
18-20 내곡교회(함형민 목사)	31-6.3 선교지방문(노회선교위원회)		25-27 원주뽕엘교회(김영호 목사)
25-27 신갈장로교회(이광수 목사)			

2011년 8월	2011년 9월	2011년 10월
1-4 금산임마누엘수양관(이수영 원장)	4 천보산기도원(유택진 목사)	2 천보산기도원(유택진 목사)
5 한일산기도원(이영준 원장)	5-9 은누리복음화협의회(임기호 총재)	3-5 양주 신광교회(김학현 목사)
7 천보산기도원(유택진 원장)	12-15 물결함빌려야 교회(전 용 목사)	10-12 진전, 퇴계원기독교연합성회(박건익 회장)
8-11 광은기도원(김한배 원장)	18 성인교회(이현국 목사)	13 성산수양관(윤호균 원장)
15-18 갈렙산기도원(이목란 원장)	19-22 성인교회(이현국 목사)	17-19 은천교회(허세동 목사)
22-25 천문기도원(최정수 원장)	24 갈렙산기도원(임예제 원장)	23-26 성산교회(순양도 목사)
23 오산리 금식기도원	26-28 성은교회(지동수 목사)	27 오산리 금식기도원
29-9.1 도곡산기도원(양예자 원장)		28 갈렙산기도원(임예제 원장)
		30 천보산기도원(유택진 목사)

2011년 11월	2011년 12월	2012년 1월	2012년 2월
3 베데스다기도원(허영혜 원장)	5-7 성광교회(유인덕 목사)	6 오산리 금식기도원	2 양평 기독교연합회 연합성회
7-9 반석교회(이종현 목사)	8 성산수양관(윤호균 목사)	8 성산수양관(윤호균 목사)	6-8 갈렙산기도원(이목란 원장)
14-16 주안성결교회(진영학 목사)	12-16 인도 선교 집회	9-12 도곡산기도원(양예자 원장)	16-18 신광교회(허기호 목사)
17 성산수양관(윤호균 원장)	19-22 소망성원교회(연인애 원장)	20-24 천보산기도원(유택진 목사)	23-26 광은기도원(김한배 원장)
21-24 주님의교회(김영경 목사)	25 천보산기도원(유택진 목사)	26-28 반석중앙교회(이명구 목사)	30-2/1 환돌교회(송우중 목사)
27 천보산기도원(유택진 목사)			
28-30 서광교회(김창수 목사)			



대한예수교
장로회

예복교회